

금주일이 깊은 뭇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흐리지 않듯이 현
명한 사람은 법을 들어 그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법규경·현철풍 82절)

東大新聞

편집장	김정진	주필	김정진	인사	김정진	송모이	김	석	정	수
편집부	김정진	주필	김정진	인사	김정진	송모이	김	석	정	수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5
 ☎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67)

제 1215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1월 1일 (수요일) 1



歸牧圖
元正月五日
牛年
[Red Seal]



신년취호=송영방(미술학과 교수)

지 면 안 내

6 기자행담

본사 전 기자가 모여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주요사건을 논의해 보았다. 기자들의 냉철한 평가와 열띤 토론속에 1996년을 정리한다.

7~8 동대문화상

진지한 역사인식과 자기성찰의 태도가 돋보여 시부분 본상을 수상한 '저문지리산'을 소개한다. 평론은 조정권 시문학의 바탕을 '세속성 거부' '부정적 현실의 극복'으로 파악한 수작 '바람과 진눈깨비의 기록'을 살펴본다.

9~13 동대 학술상

인문과학부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에 관한 새로운 이해', 사회과학부에서는 '장택민 체제의 정책기조와 그 변화', 자연과학부에서는 '생태적농업의 시대적의미' 등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지면에 소개한다.

20 만화물 본 96년

사상최대 구독자를 낸 연대사건, 월드컵공모개최, 다채로운 개교 90주년 행사들 1996년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를 강성수(미술4)군의 만화로 되돌아 본다.

백상의 지혜와 무소의 우직함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동국90주년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동국발전에 대한 전 동국인의 애정과 관심을 확인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큰 결실이었습니다. 동국 1백년을 앞둔 90년은 지난 이존에 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한 해의 성공은 과거의 영예를 배가시킬 것이요, 한 해의 실패는 과거 10년의 성상을 자칫 무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세계, 백상의 지혜와 무소의 우직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대를 읽는 혜안으로 97년을 시작하여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일관성으로 마감하십시오. 동대신문이 여러분의 눈과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대신문사

종정 율하스님, 금일봉 전달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



◇조계종 종정 율하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율하스님은 지난 4일 학교법인 동국학원 오목원 이사장에게 동국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보내왔다. 금일봉 주지 정우스님을 통해 기금을 전달한 종정 스님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종도와 사대부중들도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오목원이사장은 “앞으로도 동국발전이 자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구룡사 정우스님은 지난해 5월 29일 있었던 (비전) 동국1백주년 후원의 밤(에서 약정한 동국발전기금 5억원 중 1차분 5천만원을 오목원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지난 17일 금강종합건설(대표=정상영·법 61호)에서 송석구 총장에게 동국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전달했으며, 이희일(상 65호)동문도 지난 16일 5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보내왔다.

교수회, 처우개선등 학교측 건의 사립학교법 개정 서명운동도 활발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는 지난 12월 20일 ‘학교측에 대한 교수회의 건의내용’을 총장실과 각 부처에 발송했다.

이 건의안은 신임교수 환영회와 대의원회의 설문조사의 ‘교수 설문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며, 2월 10일까지 회답을 요구했다.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급여체제 및 교수처우개선 △교수 연구업적 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조치 마련 △연구비 지급 확대 △교과목제도 개선의 의견수렴 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한편, 경주 교수회(회장=오홍세·국문학)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추

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과 총장의 재산등록 및 공개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대학자치의 구현 △대학행정의 효율화 △교수 임용제도의 개선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등 사립대학의 구조적인 부패와 비효율적인 대학 경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각 단대별 대의원 중심으로 △불문대=9명 △인문대=41명 △자연대=31명 △상경대=29명 △법정대=9명 △한대의=13명 △의대=69명 등 총 192명이 참여했다. 이에 회장은 “본교 교수 뿐 아니라 전국 교수들의 서명서를 오는 3월 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밤 9시 45분경 학생회관 총학생회실 출입문 오른쪽 신나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총학생회실을 거의 전소시킨 채 화재 발생 30~40분만에 진화됐다. 이때 학생회관에는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회관 전체에 연기가 가득차자 학생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화재로 학생회관 1층의 전기시설, 화재감지기, 소방시설 등이 불에 타 건물 개보수비용만 3천만원의 피해를 냈으며 졸업준비위원회는 보관하던 졸업액자가 진화업종 물에 젖어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책, 결산, 컴퓨터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발생 현장에 있던 2명의 학생중 최성식(불교4)군은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던중 손에 1~2도의 화상을 입어 지난 17일까지

학생회관 화재발생

학교·총학 논의지연돼 학생들 불편

지난3일 총학생회실에서...피해액 5천만원 추정



◇지난 3일 발생한 화재로 불타버린 학생회관 현장.

지난 12월 3일 발생한 학생회관 총학생회실 화재로 인해 화인이 밝혀지지 전까지는 복구를 할 수 없다는 학교측과 화인을 알 수 없다는 총학생회측의 공방이 지연됨에 따라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회관 1층에는 총학·총여·동연·졸준위·총대 등 학생회 중앙기구가 밀집해 있어 이들의 방화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재로 학생회관 1층의 전기시설, 화재감지기, 소방시설 등이 불에 타 건물 개보수비용만 3천만원의 피해를 냈으며 졸업준비위원회는 보관하던 졸업액자가 진화업종 물에 젖어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책, 결산, 컴퓨터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발생 현장에 있던 2명의 학생중 최성식(불교4)군은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던중 손에 1~2도의 화상을 입어 지난 17일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최장규(아간 경제4)군은 이번 화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지난 여를 복미경화 협정체결 및 남북합의서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경찰에 연행, 구속돼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화재가 났을 때 총학생회실에 있었던 최성식군은 “화재 발생지점과 떨어져 있어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며 “경향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으며 신나룸쪽에서 불이나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왼쪽 손에 화상을 입어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실에 항상 신나나 페인트 등 화기물질이 많이 있었던 점과 신나룸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신나룸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구장주 총학생회장은 “정확한 화인은 알 수 없으나 총학생회가 화기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화기물질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학생회관이 정상적으로 이용되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학생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총학생회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 24일 공문을 통해 “복구는 빠른 시일내에 하겠으나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학교측 한 관계자는 “화인이 밝혀져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것에 대비한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화인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총학생회측은 “이번 화재 사건을 97년도 등록금협상등의 관계에 있어서 주 도권을 잡으려는 발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빠른 공사를 요구했다.

신화엄경론 완간

역경원(원장=김성규)은 오는 20일경에 ‘유가대교왕경’, ‘근본실체유부비나야사’, ‘신화엄경론’을 번역, 완간한다. ‘유가대교왕경’은 대변도금강어래가 정광전의 대부각에서 설한 것으로 금강계의 비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근본실체유부비나야사’는 소승불교의 한 분파인 실체유부의 약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신화엄경론’은 신화엄경에 대한 묘자를 경론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보 리 수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일 많았던 지난 한해를 가슴뿌듯하게 정리하고 나니 동양의 언덕위에 더 많은 일이 밀려오고 있다. 개교 90주년을 맞았던 지난 해에는 수많은 동문들과 불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였다. 졸업후 모교에 올 일이 없어서 오지 못했던 동문들은 여러가지 행사를 통하여 초대를 받았고 많이도 달려진 모습에 놀라기도 하였다. 밖에서 배스룸에 비쳐진 대학의 모습은 연세대학의 한층된 사태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교를 찾은 동

원을 세우자

문들의 눈에는 과거의 동국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다고들 한다. 최근에 동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 기동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이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것은 원력(願力)이라고 하셨다. 원력과 신심이 있으면 마치 수레의 두바퀴와 같이 태산 준령도 넘을 수 있으며, 진흙탕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심의 바탕과 분명한 큰 원을 세우면 이겨낼 수 있다. 이는 바로 분명한 목표의 설정이다. 짐 때나 나그네가 가고자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못했을 때 그는 거리를 방황하게 된다. 이와같이 동국이 나아가길 방향을 잡지 못했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기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다.

“이 이상 더 추락할 수 없다”는 깊은 자각과 함께 “참사람 만드는 열반교육”이라는 목표가 설정 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깊은 신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지칠줄 모르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의 원력이 너무나 안이했으면 막연하였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동국의 구성원들에게 함께 가지고 하였다. 그 소리로 모기소리처럼 가늘었고 자신감이 없었다. 이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너무나 약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철저한 자기반성의 자각과 분명한 원이 세워졌다. 원에 힘이 붙어 원력이 되었다. 시작된 동국의 원력과 신심에 동정하여 새로운 동국을 만들어 갈 원력을 함께 세우자.

한 보 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교수동정

- ▲김해영(응용생물학)=지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UNDP 여성과학자 지원회의 참석차 인도 방문.
- ▲임기중(국문학)=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학술회의 참석 및 본교와 모스크바대학간의 학술 교류협정 체결의차 러시아 방문.
- ▲임영정(역사교육학)=지난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국제 학술회의 발표차 중국의 항주대학 방문.
- ▲이건(사회학)=오는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연구자로 정리차 미국 하버드대 방문.
- ▲임동희(사학)=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미국대학의 아시아지역학부에 관한 연구조사차 미국 인디애나대학 방문.
- ▲정찬근(무역학)=오는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버타운 연구자 미국 일리노이주 방문.
- ▲김영태(전기공학)=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연구자 미국의 뉴멕시코대학 방문.
- ▲유국현(화학)=오는 1월 15일부

터 2월 13일까지 실명 연구자 독일 함부르크대학 방문.
▲안민수(영역공학)=오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자료 수집차 미국 방문.

▲김종식(경영학)=96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공’규제의 위기와 새로운 기업 문화·장부관계의 모색’에 대한 연구차 미국 인디애나 대학 방문

▲이석장(영어영문학)=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학술교류 및 학술자료 수집차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방문

▲이갑득(화학)=오는 16일부터 97년 8월 20일까지 ‘전연물중 황산화물질의 검색 및 개발’에 관한 연구차 미국 스탠포드대학 방문

본 사 사 령

- ◇임기차
 - ▲김용환(사과대 신문방송1)
 - ▲김정화(인문대 인문학부1)
 - ▲이수경(인문대 인문학부1)
 - ▲임세라(이부대 관경학부1)
- (이상 12월9일자)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앞서서 달리는 사람 심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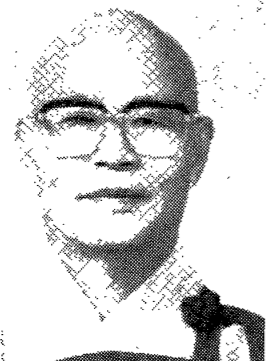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케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씩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신년사

동국 90년, 교육사의 쾌거 1백년 사업에 박차 가해야



대망의 정국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동국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동국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병자년은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격동과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세계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사년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동국 1백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동국의 오랜 숙원인 일산 제3캠퍼스 건설과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동국의 재단과 학교 그리고 동창회가 동국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해서 하나로 융합하고 단결한 예도 드물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과 결속의 기운이 성숙되고 모든 동국가족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동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전 동국가족의 성원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부처님의 크신 광명으로 온 나라에 풍요와 평화의 기운이 충만하고 우리 동국인 모두에게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신년의 인사에 거듭합니다.

신 송석구 총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개혁수대 평가에서 종합1위 차지한 점이나 2년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우리대학교가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역시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학의 양상과 학문적 자존을 제고하고 학사행정의 개선과 내실을 기할 뿐 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세계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사년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동국 1백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동국의 오랜 숙원인 일산 제3캠퍼스 건설과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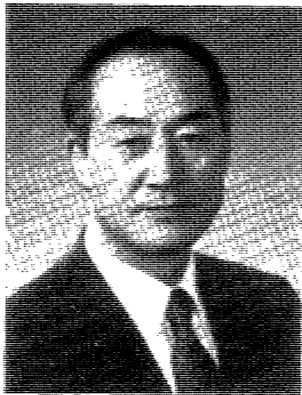
지금처럼 우리동국의 재단과 학교 그리고 동창회가 동국발전이라는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해서 하나로 융합하고 단결한 예도 드물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과 결속의 기운이 성숙되고 모든 동국가족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동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전 동국가족의 성원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부처님의 크신 광명으로 온 나라에 풍요와 평화의 기운이 충만하고 우리 동국인 모두에게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신년의 인사에 거듭합니다.

오 녹 원 이사장 합창

중장기 발전계획 지속적 추진 전동국인의 헌신적인 노력필요



정국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4.11총선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OECD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대 체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으며 특히 동국발전역사창조를 위해서 하나로 융합하고 단결한 예도 드물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과 결속의 기운이 성숙되고 모든 동국가족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동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전 동국가족의 성원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부처님의 크신 광명으로 온 나라에 풍요와 평화의 기운이 충만하고 우리 동국인 모두에게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신년의 인사에 거듭합니다.

차지한 점, 그리고 학교의 제반 시설을 개보수하여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한 점 등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민족사학의 전통을 상기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개교 1백주년이 되는 2006년까지 우리 대학을 한국의 3대 명문 사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기획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대에 부응하는 신교육제도도 도입하여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개혁과 발전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이나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단과 재단, 학교, 동문등 모든 동국인 여러분의 화합과 협조,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동국애로서만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학의 변화와 개혁은 이제 시대적 사회적 담요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듭 우리 대학의 확고한 위상을 극대화하고 학사행정을 내실화 하는데 주력할 뿐 아니라 동국 발전하는 길이라면 신명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도 원가 달라고 있는 대학,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진 우리 대학의 미래를 다 함께 지켜보면서 동국사학과 동국발전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새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동국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송 석 구 총장 합창

동국발전은 동국인의 사명 소임 다하는 삶 영위해야



‘죽어라!’ 부처님의 기피! 아니겠습니까?

어찌 짐승에서 우리나라는 감사를 여러 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해에는 과연 어떤 임무를 본인이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동국의 발전은 동국인이면 누구에게나 짐지워지는 사명입니다. 둘째로, 장학금 지급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후배들에게 대한 격려와 성원입니다. 그러나 수혜자들이 선배들과 후원인 들의 인간적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동국대학교 유폐리에서 불철주야로 학문을 탐구하는 후배동문들에게 양상을 보내기 위해 도서모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뜻있는 동문들의 동참을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동국대학교의 총동창회관 건립문제입니다. 해방된 조국과 민족의 얼을 이어받은, 호국불교의 역사를 이어받은 동국의 역사가 수치가 아닌 자부, 긍지, 창, 개발의 역사가 되도록 동국인·동국인 가족들은 총력을 기울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며 동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 민족의 역사에 길이 길이 빛나도록 공경찬을 사정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여 남겨주세요. 밝아오는 새해 모든 동국인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 뜻을 지극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사는 부처님이 되기를 발원하면서 새해인사에 거듭합니다. 부처님전에 두손 모아 합창합니다.

황 명 수 총동창회장 합창

과로부터 다져지는 학생회건설 1만2천 학우의 힘과 지혜 모아야

어느새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1996년을 지는 일들과 함께 귀로하고 찬란히 빛나는 1997년의 일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완의 반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대로 1996년의 아쉬웠던 기억들을 반성하고 1997년을 정말 정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시작의 맹세를 누구나 다 가슴속에서부터 다짐하면서 보람찬 겨울방학을 보내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는 96년, 정말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해였습니다. 96학년 새내기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노심초사 하루하루 새내기 맞이 사업을 준비해 가며 보냈던 겨울방학! 부랴부랴 인신되어 부모님의 허덕임을 더욱더 조기에 만든 동국인 신상 반대 투쟁을 준비하던

기억! 그리고 등록금의 문제가 단지 학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김영삼대통령의 1조 2천억 대선자금 문제와 국가의 교육재정 5%의 확보의 문제로 함께 투쟁하며 싸우다 울지 못한 거리에 서 쓰러져 죽어 가던 '노수 석'이라는 실연대에 세워진 모습! 언제나 역사의 진실과 정의의 불꽃을 내는 민족의 횡정 투쟁으로 학살자를 역사에 실연대에 세워진 모습! 언제나 역사의 순수한 통일 열정을 온몸에 새기며 죄경이다 폭력이다 매도당 하면서도 끝끝내 한층층 사태가 아니라 '연대항쟁'으로 만들어 갔던 8월 통일투쟁!

그리고 동국은 88년 1백36일간의 학원 자주화 투쟁으로 시작된 학자 투 10년을 계승하고 학원의 문제를 내실있게 풀어가는 97년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또한 동국의 내실을 다져가는 가운데 진정 참다운 대학생활을 살아가는 1만2천 학우들과 함께 학원의 주체들과 합의없는 학사 행정 분쇄 투쟁과 학생 자치활동을 규제하는 억압의 굴레를 뚫고 과 (학부) 학생회 부처부터 든든히 다져지는 학생회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믿음과 신뢰를 쌓고 1만2천 학우들의 진정 자치적인 힘과 지혜가 모여 학생회 강화와 학원의 자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자랑할 동국의 깃발을 든 96년 자주적 총학생회는 결연한 자세로 계속고 혁신의 원칙을 공고히 하며 진정 사랑하는 1만2천 학우여러분들과 함께 97년을 소중히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보람차게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 장 주 (서울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장)

독단적인 학생회사업 지양 학우들 의견수렴해 공감 얻어낼 것

학부모, 학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로써나 대신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국 대학교 경주 캠퍼스 제14대 총학생 회장 최진호입니다. 양상한 겨울 나누는 이 추위 속에서도 봄날에 새싹을 무기위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97년의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시작이란 새로운 방향의 제시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하고 정열적이어야 합니다. 저희 제14대 '학우 공감' 총학생회는 신중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정열적인 실천으로 한해를 시작 하려 합니다.

우선 '학우 공감'이라는 큰 가지 아래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학생회를 건설하겠습니다. 학생회의 사업이 독단적이지 아니라 학우들의 충분한 의사 수렴 체계를 거친 후에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총학 소식지나 설문 조사를 통해 공감 정치, 참여 정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어떤 소수 학생운동권에 의해 주도되어 학우에겐 증오했고, '노동 해방'을 부르짖던 학생회를 지양하고 학원인 학우를 먼저 생각하는 학생회를 건설하겠습니다. 학우 복지를 비롯한 다음에 사회문제에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 추운 날씨 때문에 지긋 지긋한 행동을 움추러들지도 모르나, 그러나 학부동과 학우님들과 함께 우리가 할차게 해야 할 일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 투쟁입니다. 타 대학보다 투자는 없으면서 턱없이 인신만 하려는 학교와 재단에 맞서 함께 싸우려 합니다. 작년에는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학우님들 그리고 저희가 상의단체가 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등록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방중에도 끝까지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한 새로운 방향 제시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97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의 인성과 계획하셨던 많은 일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3월에 힘찬 모습으로 다시 났겠습니다.

최 진 호 (경주캠퍼스 제14대 총학생회장)



목표

신년인사

■ 정국년새해가 밝았습니다. 97년은 대전과 민족종교 90년 성상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첫해로서 우리 일민이천 동학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족종교 90년 역사는 바로 우리 청년학우들이 일구어낸 역사이며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각오 또한 특별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 학생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듯이 21세기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 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진정한 세계화의 물바람을 민주시민을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 냅시다.

■ 일천 명정인 여러분의 새로운 일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충족시키는 나날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새 해는 새 부대에 담겨 지난 한해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앞장 계획으로 한해의 첫걸음을 떼었으면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메시에 열심히 정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 봅니다. 새해내 흘러내리는 땀을 무심히 먼손으로 닦을 여러분에게

작은 손수건이나 짚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정국년 올해를 한사람이 열정을 앞서나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함께 할것들을 내딛는 한해로 만들어 봅시다.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일구 내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과과대 학생회장

■ 일천구백십육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학원자주화 투쟁에서부터 8월 연세항쟁 그리고 10월, 11월 각 단과대 선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월 연세항쟁으로 10명의 구속자와 수십명의 불구속자를 났을 때 우리는 내년 자주적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선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총학생회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대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 기원합니다.

■ 언뜻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장 애를 사탕하는 여러분의 가장 애를 항상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 잘 이루시고 항상 '함께'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 간직 하십시오.

—경상대 학생회장

■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일민이천학우여러분 어느새 동국대학교에도 1997년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새로이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번 품게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새겨질 수 있습니다.

동/약/광/장

신년인사

■ 어느새 저물고 이제 변화의 희망이 97년과 함께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97년은 우리 2천4백 미래세대 학우들의 삶과 학습의 질을 높여주고 야간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내는 시기일거라 생각되는 군요. 언제나 하나되는 모습으로 야간강좌 학우들의 희망의 빛이되어 97년 힘차게 살겠습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부대 학생회장

■ 96년 예술대는 9년이라는 오랜 투쟁 끝에 단일공간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훌륭한 선배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현재의 학부생들 공동의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전성원들이 결집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낸 성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일공간으로 진정한 하나됨의 초석을 이룬 예술대는 양 학부의 꾸준한 교류와 연계를 통하여 인간적인 어우러짐을 이루고 동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힘을 모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97년은 우리 예술대와 동학의 모든 성원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술대 학생회장

은방

신년인사

■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쉬운 96년을 돌이켜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새롭게 응비하는 불교문화대 학생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불교문화대는 동국의 이상입니다. 97년은 학우여러분과 더욱더 친밀하고 끈끈한 정으로써 작은 힘이 되어 드릴게 합니다. 건학 이념의 호반신장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부처님의 미소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불대 학생회장

■ 한 해의 크고 작은 변화를 뒤로하고 97년 새해의 뜨거운 태양을 가슴 벅찬 두근거림으로 맞이합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는 무기력, 무관심, 무의식, 무책임의 늪은 정신을 갇아놓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냉철한 지성과 날카로운 비판의 맑은 정신으로 세계를 바라 봐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

—법정대 학생회장

■ 언제나 이맘때면 지난 일들을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후회되는 일들만이 뚜렷이 각인 되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은방

신년인사

■ 97년,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우들은 부단한 자기 혁신과 넓은 세상을 새로운 변화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은방골 일민 학우들의 하나 된 목소리는 작은 소리 큰 울림 되어 동국개혁의 큰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며, 이에 모든 동국 가족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어린 애정으로 동국 발전을 향한 큰 발걸음을 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회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상경대 학생회장

■ 정년 7천 법정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법정인들에게 이제 1년간의 자신의 학문의 성과물을 거두고, 내년의 힘찬 계획을 설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앞장 방학 생활을 보내시고 97년에도 청년의 패기와 열정을 가진 법정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요 합니다. 저희 법정대 학생회 일꾼들도 법정인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법정대 학생회장

■ 언제나 이맘때면 지난 일들을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후회되는 일들만이 뚜렷이 각인 되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797년 은방골은 모순에서 이제 탈피해야만 합니다. 은방골 전체의 모순은 자신의 모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누군가가 만들어 준 틀을 깨야만 합니다. 97년을 마무리할 때쯤 다시 한번 뒤돌아 봅시다. 얼마나 그 틀들을 많이 깨었는지. 모두가 함께할 때 그날은 좀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연대 학생회장

■ 지난 시간동안 새로운 시작, 도전으로 앞장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 주위와 뒤를 돌아보면 어떨까? 땀을 닦고있는 친구, 힘이 부쳐 쓰러진 친구, 다들길로 가려는 친구. 이 친구들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온정을 되돌아가면서 친구 하나하나를 잊으려 새우고, 손잡아 새로운 한해로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놓인 정체와 편견을 끊고 일어서서, 새로운 도전, 참된 용기,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찬 97년이 되었으면 한다.

—외과대 학생회장

■ 은방골의 1만 학우,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의 소망하는 일들이 이뤄지는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약과 혁신의 3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제3대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 것이며, 학습 환경 개선, 교직원 인사 분배 등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야간강좌 학생회장

지역패권 해소와 사회개혁에 선차성 부여



황 태 연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초부터 정치를 생각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마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가 시련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또 97년 대선은 더욱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러보면 어느 나라 정치가 손쉬운 적이 있었는가. 정치란 적잖이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기 마련이다.

97년 대선은 유례없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지역주의 속에서 치러지게 될 것 같다. 이러한 예상은 대선 이후에도 한동안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개혁적 유권자들은 기대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개혁과 진보의 기대치를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실망할 것도 없다. 관변 속의 1백% 개혁보다는 현실

시사논단 97대선과 개혁적 유권자의 선택

속의 10% 개혁이 나온 것이니까,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면,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중차대한 우선적 개혁대상으로 삼고 또 어떠한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정치개혁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지역주의의 극복이고 사회개혁의 과제는 노사관계의 선진국화와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일 것이다. 먼저 첫번째 현안부터 생각하면, 지역주의는 군사독재의 유산이고 이 유산은 다시 현정부 하에서 경관패권으로 변형되면서 극심해졌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극복노력은 이전 민주화 투쟁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변형, 강화된 새로운 지역패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된다.

민주주의(democracy)란 원래 고대 회람어 Demos(지역 또는 지역공동체)와 Kratia(권력체제)의 합성어로서 지역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제를 뜻한다. 데모스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공동체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바로 병든 지역공동체들의 '혈제적'동맹체이다. 따라서 지역차별이 심화되어 지역경쟁이 왜곡된 지역주의의 극복은 민주주의의 국가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역주의는 모든 지역주의를 배격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패권이 지역차별을 야기한 현실적 인과관계를 상기할 때, 패권적 지역주의의 소외지역들(제주, 전라, 충청, 경기, 강원, 경북 등)의 저항적 지역주의를 규범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저항적 지역주의는 흑인들의 저항적 인종주의만큼이나 한사적으로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 두 지역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실은 원인(패권지역)과 결과(차별지역)를 평면화하는 강권의 논리(가령 지역갈등타파론)로는 지역주의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다. 지역주의는 오로지 저 데모스들의 형제적 동맹체로서의 민주주의 이념을 복원하는 방식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말하자면 각 소외지역들이 지역민들 간의 무관심과 기피를 넘어 권력을 향해 동맹함으로써 지역차별을 야기하는 지역패권적 현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대선에서의 선택은 반드시 이 점을 선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

다음의 주요현안은 사회개혁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유럽의 1920년대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것이고 사회복지 투자는 GNP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GNP의 30% 안팎을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서구 나라들에 비하면 '발가벗은' 수준이다. 그만큼 한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려운 나라이다.

따라서 사회개혁의 관점에서 유권자는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개혁에 더 친화적인 후보진영에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망하지도 않은 서구 사회복지국가들을 망했다고 강변하면서 '작고 강한 정부' 즉, 재벌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강한 정부'라는 신보수주의 정책기조를 밀어부치고 있는 지역패권적 정부를 상술한 저 정치과제들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

지역문제와 사회개혁의 관점에서 나머지 문제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과제들의 해결에 비교적 유력한 것처럼 보이는 후보진영이 지나 개립직한 기타 문제점들은 대선과 관련된 선택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정치적 선택은 항상 여야간의 선택이라는 양자택일의 형식으로 가혹하게 제기되는 법이다. 오늘날의 정치적 현안과 무관한 후보의 과거경력과 개립직한 개인 이미지 때문에 선택을 회피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부담으로 느끼는 '자유로부터 도피자'가 아니면 '제 절한 최후의 자'일 것이다.

사설

진정한 명분을 찾자

96년 정말 해일 수 없는 굵직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지만 유감스럽게도 결코 장미빛은 아니다. 지난해의 정리와 새 각오를 맺을 겨를도 없이 우리 정치관은 정치 쿠데타라 불릴만한 시대개혁적인 기습에 속발이 되었다. 지난 26일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과 안기법 개정안의 단독처리 강행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두는 번쩍 뜨고 있는 국민들은 이른 새벽 단 7분동안 앉았다 일어나서 3번을 통해 무슨 군사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국회 통과 시키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두 법안의 시급성에 비해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못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 화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 부연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 이전에 과연 누가 물리적 충돌을 만들었는가? 여당 자신들의 주장은 옳은가? 아니, 다수를 대변하는가? 진정 묻고 싶다. 응색한 변명에 '국민의 선택' '국민의 심판'이란 말로 더 이상 국민을 속하지 말라.

민주주의의 정치는 기다림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낱 정치적 입장차이를 반대세력으로 돌아 명분을 얻으려는 유아적인 발상에서 보이는 보수적이고 강경한 정책들의 배후한 저물들은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야당의 대응에서도 쟁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야당은 대 여당 연합을 통해 분명 실력저지를 할 모양이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의 강행처리에 발미를 주는 것은 여당이 그만큼 야당의 대응을 반대급부로 돌아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 기인한다. 야당은 이것을 바로 올바른 명분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여당이 내면 대선의 고지점령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는 이상 야당은 대선이란 정치 정략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 행위를 보여주자고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어지고 있다. 아직 법과 단테로서 어떠한 대응도 법 테두리내에서 벌이기 어려운 민주노동과 같은 노동계는 당장 국민의 불평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신중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악용하여 또한 연립 안정을 회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심리에 기대어 자행되는 책임화산 물리기의 여된 물이 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거듭 주장하는 바 정부와 여당은 올바른 명분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민주적인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과반이 넘는 다수에 의존한 힘의 논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두는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돌아 보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이름값을 하지 않겠는가.

통국만성

고대성



◆ 피라미드 판매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장미빛 사업이론 믿고 판매 시작

턱없이 비싼 물품비 지급으로 엄청난 개인손해

93년 말부터 시작된 다단계 판매 방식의 국내 시장유입은 피라미드 판매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나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 방식의 이득도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지난 93년 말 서울 강남에서 '3진공법'이라는 운영체제로 첫선을 보였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최초 투자자가 업체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값을 지급한 후 다음 투자자가 2명을 더 확보해 그 명목으로 나머지 두명의 투자액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챙기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자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는 2, 3순위의 투자자도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투자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원투자가 계속되지 않으면 전체투자자 중 1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한 2/3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피라미드는 다단계 판매와 같이 업체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상품의 구매자인 동시에 하위판매원에 대해선 판매자가 되는 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단계 판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다단계 판매는 회원가입비가 전혀없고 판매원이 재고 상품의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판매원의 주

수입원이 다단계 판매의 경우 판매 수익인데 비해 피라미드 판매는 하위판매원의 등록수익이라는 점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초창기 강남일대에서는 물품을 구입한 개인이 투자자로 등록하여 불품구입비를 투자금으로 지급, 이 지를 벌여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많았고 여유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여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화장품, 침구, 건강보조 용구기 등을 다양한 부류의 판매원에게 판매한 후, 그들이 투자자를 확보할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라미드 판매는 판매원의 확보와 판매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판매원 확보면에서 강제성이 드러난다. 95년 7월 배화여전 2학년이 재학 중이던 윤모양은 고향

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남부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유통에서 이틀간 교육을 받다가 간신히 탈출한 경험이 있다.

윤양은 "강제 규율을 당했으나 오랜 친구라서 신고도 못하고 친구의 연락을 끊고 지낼 뿐"이라고 얘기한다. 친구나 친지를 가장 쉽게 판매원으로 만들려는 방법은 피해자가 고발이나 고소를 할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강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판매방식의 문제점이다. 해외 유명석학들의 이론을 근거로한 1주일간의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무명석학들의 이론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판매를 시작한다. 96년 2월 판매경험이 있는 동덕여대 1학년이 재학중인 신모양은 "사립(피라미드)판매에서 불품구입)시작할 때는 자신도 한 유통업체의 사

장(피라미드의 꼭대기)이 되기를 꿈꿨다"며 "물품구입비 마련을 위해 집에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당할 때 망설였으나 '인생에 기회는 여러번 오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하면 된다'는 위안과 돈없는 설움을 떠올리며 판매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는 물품을 사기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타기 위해 물품대금을 매꾸게 된다. 이로인해 물품비 지급없이 물품비 지불과 배당금 지급만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투자단 남게돼 파경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피라미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통상산업부에서 마련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을 시행령 개정안은 96년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골자는 80만원이상의 고가상품은 다단계판매를 금지

하고 3억 이상의 자본금과 전산시설을 갖추도록하는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피라미드 판매의 폐해를 막기 위해 판매원 모집 또는 추원을 강요하는 행위나 상품 지급없는 금전거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근시안적 대응책은 별 시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등록신고만 하면 판매업체로 공인된 것이 때문에 그들의 판매원 모집에 용이한 결과를 낳았다.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보호센타를 찾을 경우 물품의 반환과 계약의 파기정도에서 그친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피라미드 판매원이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일대의 피라미드 조직의 피해자가 3D 직종을 싫어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학생이나 20대 증반층인 것이 이를 잘 나타낸다.

황금만능주의의 만연과 함께 시장 유행이 개방화되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갖가지 사냥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그곳엔 항상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재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유혹한다면 누가 자신의 소신대로 떨쳐내 생각하고 옳은 결정을 기다리겠는가? (진)

중외제약

"SPC를 쓰고부터는 눈이 참 편안해졌어요"

계원예고 **김현수**

"렌즈관리가 두배로 빨라졌습니다."

동국대 **노훈**

렌즈관리 정말 편하죠, 눈도 편안해요-SPC

"SPC 팬이예요 세척과 단백질제거가 동시에 되거든요"

명대 **이승민**

"눈이 예쁘다는 말 자주 들어요. 비결은 바로 SPC죠"

포일로재 **조문숙**

● 세척 및 단백질 제거용 SPC

● 1일 1회 세척용 중성크리너

● 렌즈에 잔류 단백질 제거용 세안액

● 1주 1회 단백질 제거용 세안액

● 보습용액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깨끗해요 / 잘 닦이지 않는 단백질, 알칼리 없이 줍니다

안전해요 / 세균오염을 방지해 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편안해요 / 수중용액이 뿌리기 쉽고, 직용감도 부드럽습니다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동시에 -

SPC 에스피씨 액

● 수입원제품 ● 권장소비자가격 ● ₩ 5,500 / 2개입분

중외제약 음성정보시스템

(02)815-1999를 통해 24시간 24시간 상담

다양한 문의사항은 렌즈관리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안정된 렌즈관리 센터는 렌즈 관리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콘택트렌즈 관리상담실 운영 중외제약에서는 콘택트렌즈 부주의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코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심 사항은 해당지역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사업소 상담실 ● 본사 8406-765-7 ● 북부 968-1332-5 ● 인천 873-4197, 7564 ● 수원 39-6220-1 ● 부산 531-7575-9 ● 창원 65-2256-8 ● 대구 354-5671-3 ● 광주 529-4806-8 ● 전주 254-3038, 77-0209 ● 대전 621-5881-3 ● 청주 57-1751-2 ● 원주 42-0401 ● 제주 47-5914

밀러, 버드와이저, 레드록, 하이네켄, 미켈라...

요즘 젊은이들이라면 평소 애용해 즐겨 마시거나 혹은 한 번쯤은 마셔봤을 '수입 맥주'들이다.

이런 수입 맥주가 공식업체를 통해 유통되지 않고 미군부대 PX를 통해 암거래되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 걸쳐 96개의 미군부대가 배치돼 있다. 각 부대주변에는 미군을 상대로한 상점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동두천에 위치한 미2사단을 찾아 보았다. 12월24일 오후2시경 부대주변 상점이 밀집한 길목에서 자리를 잡았다.

◇미국 PX 맥주 불법 유통

미군 1인당 물품소비량 초과 반입...외부 유통 SOFA 개정 통한 블랙마켓 구조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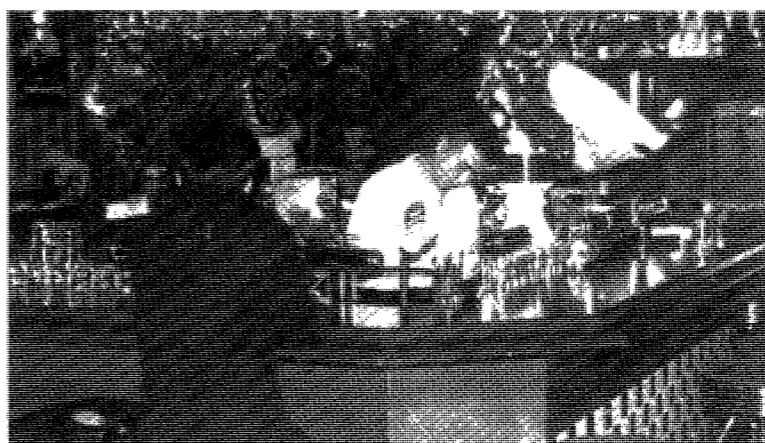
던 짐꾸러미들이 가뭇해져서 나온다. 30~40분 동안 1백명 안팎의 군인들이 크고 작은 짐들을 들고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미군이 직접 유통하는 것 외에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이 출입증을 구입해 PX에서 직접 물건을 사기도 한다.

을 장거리치고는 부피가 조금 큰 봉지를 들고 부대를 나서곤 한다. 차 트렁크에 싣기도 한다.

개개인이 이렇게 물량을 빼돌린다고 봤을 때 극히 작은 일로 넘겨 버릴 수 있으나, 96개 부대 주면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시 못할 물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예외와 정작대로는 블랙마켓의 규모를 알아보기 힘들다. PX내외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량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량을 따져본 후 불법유통량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인해 대략적인 시장구조의 맥락과 물량이 상당하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소비량은 알기 어렵다.

우리주변에서 미군 부대 물품이 유통되

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맥주 버드와이저의 경우 미군 PX에서 1병당 3백5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이 시중에서는 3천원에서 5~6천원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동두천에서 '다비타의 집'을 운영하는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미군 범죄 근절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목사는 "사람들이 불법인증을 알면서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누가 바보처럼 비싼 거 구입하겠습니까"라며 반문하기도 한다.

미군 주변 51년동안 구조화된 블랙마켓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설사 면세를 받고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고려했다 해도 이미 맞먹던 값싼 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된다면 우리 시장구조에 미칠 영향은 볼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들고 마시는 수입 맥주 한 병이 어떻게 손에 잡히게 되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고지은 기자)

◇노동법 개정 7가지 주요요안 정리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사람들은 환경권 개혁의 척도로 노사관계와 교육 개혁을 꼽는다. 이에 지난해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여기서 노동법 개정에서 있어서 가장 현안이 됐던 주요 안전 자체가 무엇인지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로 개정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짚을 수 있겠다.

◇노조정치활동 금지

노조가 정당과 같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정치선거운동에 대한 시위단체와 같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왔다.

◇제3자 개입 금지

한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외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민주노총의 자문, 여러 관련된 단체 등의 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노동계에선 현행 금지규정을 없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한층더 엄격한 노동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념단체 등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제3자 개입금지를 존속시키거나 다른 형태라도 개입을 막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수노조 금지

복수노조는 근로자가 원하는 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된 법안인데 실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상 노조규약을 개정할 경우 사업장 업종 직종별로 복수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별 노조는 해당기업의 근로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규약을 갖고 있어 1기업 1노조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97년부터 상급단체만 허용하게 하며, 교섭창구 일원화를 전제로 2002년부터 기업단위는 허용한다고 한다.

◇정리해고제

정리해고제는 기업이 산업구조조정이나 부서통합 등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감축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이다. 현행 노동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부당해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으로는 경영악화나 작업형태 변경, 산업구조 변화나 업종변화 등 강력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해고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정당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고 60일전 노조와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게 돼있다. 사용자측은 이 법안에 대해 노조의 협의만으로 정리해고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노동계는 노조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장시간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한다. 현재 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안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2주단위 주당 48시간까지 허용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1달 단위 주당 56시간까지 허용되며, 당사자 합의시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생기더라도 실행가능성이 없으며 사용자측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 즉 일을 많이 시켜도 전체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적 근로시간제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 즉 일을 많이 시켜도 전체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작업량이 많은 날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음날 8시간 미만으로 일해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노동계는 전면 반대를 외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적극적으로 안을 지지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제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나 다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가령 특정부서의 일이 늘어날 경우 임시로 근로자를 파견받는 것으로 기업은 정규직원에 따른 인건비 후생복지 등 각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은 고용불안, 중간착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공무원·교원 단결권

공무원이나 교원들도 단결권, 즉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공무원에 아직 시기상조이며 교원들은 특별법에 의해 수용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개정안은 시도별 교원단체복수노조와 상급단체 결성은 가능하도록 하며, 교원단체를 일원화하고 정의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99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인선 기자)

동약로

6분30초



들른 연말연시를 접은 채 학교로 올라오던 중 너무나 황당한 대차보살을 읽었다. '오늘(26일) 새벽 6시경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찬찬히 다시 읽어보지만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 날치기 통과이다.

이러한 정부의 날치기 통과 무효를 위해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은 명동 성당으로 하나씩 모여든다.

전경들은 어느새 미리 집을 치고 무리를 지어 감시하고 곳곳에 나붙는 파업 속도 대차보살, 이러한 광경에 명동거리의 사람들은 최루탄·화염병 등을 미리 연상했는지 일찌감치 지하철약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날치기 개정 무효화 투쟁 집회는 시작된다.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무효화 시키겠다는 노동자들 이에 함께 투쟁하겠다는 학생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노동자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명동거리의 집

으로 향한 사람때문인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커져만 가는 구조와 노래소리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줄 곳 한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과연 명동성당에 모인 이틀만이 이번 날치기 통과와 관련이 있는 건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는 함께 일하는 아버지와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한쪽에서는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며 소망을 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집회에 모인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고 다수의 사람은 짐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오늘 아버지의 길게 매인 주름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이태훈 기자)

PAGODA 외국어학원 1월6일 개강.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파고다외국어학원 직영학원 - 파고다주니어 어린이 영어학원. 미국인 영어회화, 정규영어 회화과정, INTENSIVE S.L.E. COURSE, INTENSIVE ENGLISH COURSE, 기초 영어회화, 유학·진학 취업영어, 외국 WISCONSIN 대학반, 일본어, 독어·불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 통신 프로그램, 통신문자 강좌, PAGODA INTERNET HOME PAGE, OPEN 기념행사.

◇ 기자방담

종합평가·90주년행사·학부제실시 등 많은 사건 있어 제3캠퍼스 건립·경주캠 대중평...올해 관건으로 예상

▲지난 96년 한해동안 본교의 곳곳을 다니며, 동국인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해와 다름없이 올 한해 역시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내 상황을 보면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의 역할을 맡아 따라 부학생회장 중심이 되어왔고 8.15 별대회 이후 집행부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져 학생회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교육개혁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과 야구부 총계리그우승, 주자우승과 실사, 대학종합실사, 개교 90주년 기념으로 치러진 다채로운 행사 등을 올 한해 주요 사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학외로는 8.15범민족대회와 집수할 침투사건으로 인한 공안정국 조성과 노동법 개정 관련 움직임이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성언론의 편파보도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짓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심지어 지난 11월에 있었던 각 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총련 사태의 여파로 학생들은 학생회 조직을 불신하는 양상까지 띄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였던 북한 침투사건은 남북간의 관계를 극도로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응징으로 북한을 대항하다'는 말처럼 남북관계 해결에 있어 강경파대응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통일 운동은 이러한 정부 입장에 불구하고 꾸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여당의원들의 인기부럽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모습은 문민정부의 신념을 흔칩니다. 그리고 각 계층의 노동자들 특히 민주노총의 움직임이 주목되며 96년 연말 정국의 혼란이 야기되는 매우 큰 사건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학내의 전반에 걸친 주요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안마련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평 성공적...내실운영 필요

▲1년 연가하여 평가를 받은 본교의 대학종합평가는 그 동안의 학내 LAN공사와 학부제실시 등으로 인해 편향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2년동안 준비한 대학종합평가는 일단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주캠의 경우 올해 대학종합평가를 치루기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학교측은 이미 LAN공사를 끝낸 상태지만 원효관과 진흥관 등 몇몇 건물까지 이취직할 않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문제, 기반 시설부족, 학생들의 인식 부족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본교 설립부분은 신중히 검토 후 빠른 시간안에 건립되야 하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에 학교측은 반성해야 합니다.

제3캠퍼스 협실화

▲본교 송석구총장의 공약사업이었던 일산 제3캠퍼스 건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산의 부지를 모두 매입한 상태에서 송총장의 재임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내년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학령동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될 듯 합니다.

= 또한 공과대 생자대동 제3캠퍼스로 이전하는 단과대들의 심한 반발과 경주캠의 경우 재정적인 면에서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움직임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제 실시 그후 1년

▲이런 해의 커다란 교육변화가 바로 학부제 실시였습니다. 많은 전공취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실시됐지만 그만큼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났다는 게 사실입니다.

= 학부생들의 자기공간 미확보와 전공과목이 한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학부제 실시 2년을 맞이하는 내년

에는 이보다 나은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이른 학부제 실시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지난 한해동안 일부에서 '대학교육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위해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느냐', '실정에도 맞지 않으면서 너무 교육부 지침에 따라가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올 해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경주캠의 경우 총학에선 '학부제 전면 반대'라는 입장으로 움직임을 보였지만 학생들의 인식과 참여 부족, 각 단과의 이기주의 등으로 투쟁의 힘이 분산되었다고 지적됩니다.

= 경주캠 인문학부의 경우 편제에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인문학부로 묶어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철학과는 경우 학부생들의 수강신청이 없어 고사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학과 독자적인 수업거부 등 강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학교측이 방편으로 제시한 것은 '97년도부터 3개학부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지만 신재민 문제들이 많아 결과를 지켜보아야할 것입니다.

= 이렇게 진행된 학부제 속에서 학교측과 학생들의 움직임은 지난 한해동안 미비했으면, 강의실, 교수 확보 등 교육환경 마련과 함께 2학기말 전공선택 등 학부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학부 학생회 구축사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서울캠 총학 전반적으로 침체

▲8.15별대회 이후 본교의 총학생회는 그 구성점이 흔들렸던 한해였습니다. 총학생회 회장의 부재로 부학생회장 중심으로 꾸려졌던 사업조차도 황인구 부총의 구속으로 학생회가 제임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학생회원의 회재로 총학의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 부진한 학생들의 참여속에 실시된 총학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나선 구정주·원진욱 조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들의 내년 사업 전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총학사업에 학우들의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학의 등록금 협상 또한 실패로 끝난 점도 이번 학생회 사업은 전반적으로 침체했으며 단대선거 연기도 이의 여파로 짐작됩니다.

경주캠 총학 분열속 사업 진행

▲수렴대 사건이후 경주캠의 총학생회는 한해동안 질풍발이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학내에서 정부학생회장의 권력싸움을 하는 듯 한 양상은 결국 명목없는 대자보로 서로간의 인신공격, 양쪽의 탄핵서명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대가 비대위를 꾸려 사건 해결에 나서는데 어찌구비 없는 모습까지 보여졌으며, 차후에는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참 석 자

◇ 서울캠퍼스

- 김기영 취재 1차장
- 고지은 사회3차장
- 이태훈 사진 차장
- 심미선 기자
- 최정식 기자
- 김영환 기자

◇ 경주캠퍼스

- 신형섭 편집부장
- 이현주 취재부장
- 신용우 취재2차장
- 조인선 사회2차장
- 이성용 문화2차장
- 이해경 기자
- 김정화 기자

◇ 일시: 1996년 12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본사 회의실

사 토론회실시등에서 학교측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의로 학교측과의 의견차를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 김익기 교수회장은 앞으로 교수·직원·학생이 하나되는 자리를 만들 예정으로 있으며 학교측과 논의의 장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90주년기념행사 지연한계로 아쉬워

* '개교 90주년 기념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열림음악회, 청소년음악회, 국보보존가중전, 황해옛목탑사 등 여러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 단지 취재기사나 일정 전달정도에 그친 것이 아쉽습니다.

= 1학기는 개교기념일을 위시하여 행사가 집중되어 나타났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했던 점과 신문 지면의 부족으로 단지 일정전달에 그친 것이 아쉽습니다.

= 한편으로 90주년 기념행사가 너무 서울캠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90주년이라는 의미가 경주캠에선 많이 희석한 것 같습니다.

한외대 사태 난항

▲2천여명 약사들의 움직임인 한외대 사태를 구제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한외대제시합(한조시)은 그 의도와 달리 합격률이 90%를 웃도는 결과를 초래해 본교 한외대는 지난 한해동안 수업·등록금 부 등의 격렬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 정부는 국회청문회를 통해 한조시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관련자 몇몇만을 처벌하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며 마무리했습니다.

= 그후 본교 한외대생들은 수업거부 투쟁을 계속한 결과 24명의 미등록 학생들이 제적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학생들은 조건부 수업복귀를 제시했지만 학교측과의 입장차이로 앞으로의 상황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느때보다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나기 사건으로 인한 한외대의 반공백을 메우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항상 한해를 마무리 지을 때는 그렇지만 특히 더 아쉬움이 남는 해이군요.

아직도 생활협동조합 건설문제, 등록금 협상, 제3캠퍼스 이전, 경주캠의 대학종합평가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내년의 주된 관심은 학생회의 운동과 제3캠퍼스에 집중되어 질 것 같습니다. 전 기자 여러분 한해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록·정리=신용우·이태훈 기자)

공무원, 자격시험에 관한 궁금증을 상담해 드립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무원	7·9급
경장간부	대학원	대기업	공무원

TOEIC / TOFEL 교사재용

제1회시험 97년 상반기 예정 **중개사 변리사**

25년전통의 전문강사진 직강 개강 1월 3일
충실한내용 / 새로운 체제 / 전국최다합격

行政考試學院

전철1호선종각역2번출구(734)8082·9484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원" LTRC

영어를 왜 LTRC에서 배워야 하는가?
여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최고의 영어회화 프로그램
- 25년 동안의 영어교육 경력
- 시청과 광화문에서 3분 이내
- 읽기, 쓰기, 발음, 문법 등의 무료 특별 프로그램

LTRC is your key to learning English

제151기 수강생 모집

개강일 : 1997년 1월 6일
반편성 : Level Test에 따라 8~13명으로 구성
수강시간 : 1월 75분 주5일 수업(8주)
강사진 : Native speaker직강
등록비 : 12월 18일부터 선착순
접수전화 : 737-4641
팩시밀리 : 734-6036

전원비인 언어교육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호텔빌딩

謹賀新年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포교원 (동신대 定法大學)

불교지도자협회 **장각각성** 신도일동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길동전철역 하차)
TEL. 472-5292

발매 30일만에 3쇄돌입!

베스트셀러 '악어새'의 작가가 7년만에 내놓는 야심찬 감성소설
누가 주인공을 가리켜 불륜이라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가!
독서불황의 계절, 대학가의 사랑과 낭만으로 정신적 풍요로움을!

이·재·인·장·편·소·설

모딜리아니의 마을로 가는 날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기의 육체와 삶을 번제로 바치는 여대생의 이름다운 사랑의 헌신...

월남전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깨어지는 가정과 개인의 비극이 사랑의 이름으로 헌신되는 한 여대생과 운명처럼 다가선 남자의 육체와 영혼의 승화

이진주(안화기) 주인공 여대생을 가리켜 우리는 '불륜'이라는 말로 매도할 수 없다. 그에게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미국에 대한 저항의 최후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영진(경기대교수) 서문다섯의 젊은 교수와 여대생과의 사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의있는 사랑의 자기 삶의 방향을 제시한 새로운 인물 창조이다.

남영욱(주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삶의 질곡과 그 아픔으로 미국에 정착하여 끝내는 자기회생의 승화를 멋지게 처리한 소설이다.

최달진(회사원) 대학생들의 사랑과 공과 고비를 리얼하게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종족과 인간의 기본권 확립을 제시한 소설이다.

박일순(대학생) 아담하고 환상적 분위기에 빛나는 여대생이 주인공이 되었었다

쇼진출판사 전화(032)432-2413~4 / 팩스(032)432-241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1542-26

동대 문학상

1997년 1월 1일 (수요일)

제 1215 호 특 집

7

알림

제11회 동대문학상 입상작 발표

- ◇시부문
 - 본상 저문지리산
 - 김태희(사범대 국교3)
 - 가작 바지락
 - 윤영도(문과대 국문4)
 - 천황산에서
 - 임형빈(인문대 국문3)
- ◇소설부문
 - 본상 입상작 없음
 - 가작 퇴화인
 - 한상명(법과대2)
- ◇평론부문
 - 본상 바람과 진눈깨비의 기록
 - 구인모(문과대 국문3)
 - 가작 광대의 미학
 - 김정훈(사범대 국교4)
- ◇심사위원
 - 시부문 최순열(사범대 국교과 교수·시인)
 - 소설부문 한용환(사범대 국교과 교수·소설가)
 - 평론부문 홍기삼(문과대 국문과 교수·평론가)

시부문 본상 수상작

저문 지리산

김태희

한반도 근대시는 어디서나 배우고
어디서도 배우지 않는다
내 지밀한 만란은
수만 능선을 들이 비릿한 어둠을 끌고 있다
별이 없는 밤이 너무 오래되어
산길은 설핏하게 높은 나무를 올려다 보고
숲은 자꾸 숨이차서 주저 않는다
역사의 거리가 매질당할 지리산
이곳에서 나는 누구의 마음을 올려다 볼 수 있을까
이승의 물소리보다 더 선연하게 들리는
밤의 껍질이 옷을 벗는 시퍼런 피아골
청대같은 밤의 신령을 따라 세석을 오른다
죽이 마르다
이제는 별빛만큼 인정되게 오른것 같다
지리산 입가에 취해버린 저 아래 침묵의 강
내 고향으로 퍼지는 그 도도함
어찌자고 나는
위험한 곳만 자꾸 오르려고 하는가
구름이 눈에 밟힌다.

시부문 본상 수상소감



“날지 않는 새는
길을 잃는다”

김태희
(사범대 국교과)

얼마 전 다녀 온 동해 어디쯤에서 바다는 흥건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몽크의 '절규'를 연상케 하는 참혹한 아름다움. 나는 그 곳에서 나의 꿈이 인간적이 아니라 길이었다.
제 멋대로 취해 시퍼렇게 뒤집어지는 바다. 반쪽의 중심이 된 피는 은하까지 넘쳐 흐르고 우물한 껍질에 가려진 나의 꿈은 화려하게 부패한다. 모든 것은 너무 가까이 있어 위험하다. 에이즈의 새벽 인계처럼 무지하고 싶다. 그래서 푸른 신선의 기운을 불무질하는 땅위에 서고 싶다. 이제야, 지워지지 않을 유령지 거울 빛깔 속으로 유배를 떠난다. 그리고 풀려나가지. 그 옛날 어머니의 손놀림이 바뀐 땀방울에서 봄비가 올 때면, 날지 않는 새는 길을 잃는다.

평론부문 심사평

예리한 관점에 더해진 진술의 안정 용어·조사등의 독창성 더 키워야

구인모군의 (바람과 진눈깨비의 기록), 김정훈군의 (광대의 미학) 두 편을 결선에서 읽었다.

김유정 소설의 내적 형성 원리로서 해학의 의미를 분석한 (광대의 미학)은 비평적 개성과 자기 주장이 두드러진 글이다. 설득하는 힘, 공감으로 이끄는 진술의 능력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의 글을 구성하는 방법이 아직은 서툴다. 인용은 깊고 분석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언어가 거침없어 느껴지는 것, 문제가 고르지 못한 것도 유의해야 할 일이다.

(세속성의 거부), (부정적 현실의 극복)이 조정권 시문학의 바탕을 이루는 중심의 과제로 파악한 (바람과 진눈깨비의 기록)은 비평적 관점의 예리함과 진술 체계의 안정감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어휘의 사용도 원만하고 비평 용어의 선택도 비교적 적절하다. 문제가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 절제가 차분함을 더해서 비평적 역량에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된다. 조정권의 시가 활력을 상실한 정신주의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평 (바람의 글자)과 진눈깨비처럼 스러지는 지상의 언어라 할지라도 그 언어를 통해 (지상의 신성)을 찾아 모험을 멈추지 않는 시인으로 이러한 관점에 공감한다. 다만 비평 용어나 조사(措辭)중에 기성 비평의 분위기가 다소 느껴지는 점은 아쉽다. 그것은 비평가의 개성을 의식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일이다.

홍기삼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시부문 심사평

상투적 문법 극복·역사의식 돋보여

대체로 신예들의 작품에 기대하는 바는 예민한 감성, 예각적인 안목, 실험적인 언어조작등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향후의 가능성이다.

음모된 29명의 작품들을 읽어 나가면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졌다. 질제되지 않은 사적 정서의 직정적 표출과 함축되지 않은 언어의 내열이 두드러지는 경우, 또 진부한 정서와 상투적인 시어와 시적 기교로 일관하는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성숙치 못한 특성이지만 제 역량을 가다듬으려는 의지로 시어의 선별과 주제의 설정을 시도한 경우였다. 일단 일차로 추려진 작품은 (푸른 일), (저문 지리산) (바지락) (95여름잠마) (바람의 기억) (감포) (천황산에서)였다.

결국 유망한 호흡과 비감한 서정을 냉철하고 안정감있게 엮어나간 (저문 지리산)을 첫머리에 놓기로 했다. 진지한 역사의식과 자기성찰의 태도가 돋보인다. 다음으로 (바지락)과 (천황산에서)가 작품의 완성도에서 차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실 나머지 작품들도 이들의 수준과 견주어 있었으나 동일인의 응모자작품이 갖춘 고된 수준의 여부를 고려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최순열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시인)

소설부문 심사평

대부분 통속적 경험 재현에 머물러

음모된 수가 빈곤했을 뿐만 아니라 음모된 작품의 수준도 역시 기대에 미흡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작품들이 통속적인 경험들을 도식화된 시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 등장역 미흡하다. 소설이란 모름지기 문장에 의존해서 이야기의 구조는 문학의 형식이라는 사실은 새삼 유념되어야 하겠다.

(退化人)과 (강물 흘러 내 빈 자리에 닿는 시간들)중 어느 것을 가작에 뽑을 것인지 망설였다. (강물...)은 습작의 흔적이 보이고 문장도 비교적 안정돼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서술이 장황하고 당면한 이야기의 합리적인 발전이 파탄돼 있다.

결국 (퇴화인)을 선택했다. (퇴화인)은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다. 이 소설은 여러 측면에서 이상의 (날개)를 너무나도 잃어 있다.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면 모자이크 변호의 관점에서 보자면 패러디에 가깝다. 그러나 재치와 기지에 넘치는 문장만은 빌어온 것이 아니다. 가작에 뽑는 이유이다.

한용환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소설가)

평론 부문 본상 수상작

바람과 진눈깨비의 기록

신성한 숲으로 가는 길

시를 일상의 현실이 강요하는 다양한 층위의 질곡을 거부하고 세계와 인간의 근원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예 양식이라 규정할 수 있다면, 조정권은 그러한 시의 의미와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이해하고 수행해 온 작가라 할 수 있다. '흑관'으로 대표되는 순연한 감성으로부터 '근성', '구열'과 같은 견고한 생명의 의지, 시집 '하심공'의 풍양적 은사의 면모나 유유자적의 세계를 거쳐서 시집 '산정묘지'의 드높고 자유로운 정신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조정권의 작품세계는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비상을 노래하면서 점차 그 성숙도를 더해 가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정권 시의 견고함은 각 시집들의 작품경향과 주제 의식이 일관되게 "세속성의 거부", "부정적 현실의 극복"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데서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조정권이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 현실은 "살방이 싱거워 지고 소금이 찌꺼기를 잃어 가는"(산정묘지 23) 공명한 시대이다. 조정권이 부정하고 있는 현실의 조건은 존재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그리고 삶의 근원적인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억압과 폭력이다. 조정권의 처녀시집 '비'를 바라보는 일관 가지 마음의 형태에서 '산정묘지'까지의 시면들은 이러한 억압과 폭력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탐색의 과정이라고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부정적인 삶의 세목들을 의도적으로 의면하지도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환상의 영역에 쉽게 안주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 양자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항상 비판의식을 날카롭게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삶의 부정적인 세목들을 온몸으로 밀고 헤쳐 나가는 엄격한 작가정신은 동시대 여타의 시인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조정권만의 개성이자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권의 이러한 작가정신은 연작시 '산정묘지'에 이르러 가장 정면된 면모로 보인다. 이 시면들에서 조정권은 스스로 '가장 높은 정신', '신이 거주하는 천상의 일각' (산정묘지 1) 이라고 명명한 '산정'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은 삶의 비의와 우주적 질서를 재현했다. 아울러 '산정'을 향해 열려있는 거울산을 오르면서 "자신의 발등에/스스로 열음을 더뜨리며/스스로 맨발로 열를워를 밟는"(산정묘지 5) 가혹한 의지 차 삶의 절대적인 경지를 대한 갈망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구가했다. 연작시 '산정묘지'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정점의 황홀경과 타락한 지상의 인간들을 참과스럽게 하는 위엄을 드러내면서, 다른 작가와는 구별되는 조정권만의 작품세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조정권의 화려한 문학적 성취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다. 그것은 "산정과 지상 사이의 가능성"을 잃는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산정이라는 정점에 까지 올랐던 시인의 발걸음이 이후에 어디로 향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의문점은 연작시 '산정묘지'가 내포하고 있는 또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조정권의 작품세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조정권은 자신이 그러한 광막한 정신의 지평도에 '신성한 숲'이라는 새 이정표를 꽂았다. 과연 '신성한 숲'은 앞서 연작시 '산정묘지'가 남겨 놓은 의문을 풀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제 그 '신성한 숲'을 찾아가 보자.

하심의 의미

시집 '신성한 숲'(문학과 지성사, 1995)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인이 '산정'에서 내려와 '숲'을 들어섰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절벽의 끝에 독립하며 스스로 길을 끊어버린'(독락당) 시인이 "얼음 한 조각 들고 처음 올라온 길을 찾아 내려간"(산정묘지 30)것으로 요약되는 이 '하심'은 이미 예견된 수순에 따른 필연적 행보로 보여진다. 그 하강의 단초는 '신성한 숲'이전에 '발표된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산백과 산맥이 숨가쁘게 치달아 내려간 곳엔
바다가 가로막고,
길은 절벽에서 끝났다.
(중략)

그대 돌아가야 하지 않은가.
휴식이란 얼마나 위태로운 잠인가.
그대 아직도
눈은 암흑속에 던져진 돌처럼 우주를 헤매며
고아를 꿈꾸고 있는가.
귀는 설원속으로 탐험을 떠나 소리치는
설총속에서 혼돈을 그리워하고, 깨우쳤지만
발은 길을 잃었도다.
하늘에서 잠정이 회를 치듯 태양이 세계의
문을 열기 전부터
길은 어디에 있었는가.
처음의 순간은 어디였는가.
'산정묘지' 13에서

이미 '독락당'에서 '절벽'은 삶의 본질과 비의, 정신의 절대적 자유를 확보하는 신화적, 제의적 공간으로 형상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절벽'은 단지 화자가 느끼는 절망과 허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며, 더욱이 시인은 다시 내려갈 수 없다고 스스로 길을 끊어가면서 울렸던 산정에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왜 다시 돌아가려 하는가? 그가 도달하려 한 산정의 '빛'은 다만 착시에 의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조정권의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시인의 전유물이 되었다시피한 '산정'의 의미를 보다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정권은 '산정묘지'에서 '산정'을 "신이 거주하는 천상의 일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산정은 인간의 처소가 아니므로 그곳에 도

달하거나 머무르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된다. 즉 '산정'은 인간의 영원한 거주가 아닌 일회적인 방문만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정'에서의 '깨우침'과 '독락' (그것은 깨달은 자의 발발에 가까운 것이라) 또한 일회적이고 비영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산정에서의 독락'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는 한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오히려 세계와 인간의 삶을 의도적으로 의면함으로써 값싼 낭만성, 혹은 관념적 정신주의의 유혹에 침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현실 극복의 의지가 '산정'이라는 한 극점을 머물 때 시인의 의식은 화석화를 면하기 힘든 것이다. 위의 시에서 '휴식'이 '위태로운 잠'과 동일시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조정권은 "그대 아직도 눈은 암흑속에 던져진 돌처럼 우주를 헤매며 고아를 꿈꾸고 있는가"라는 구절을 통해서 '산정에서의 독락'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한편 '우주를 헤매는 것, 고아를 꿈꾸는 것'은 내면으로 침잠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행위이다. 조정권의 발걸음이 '바다'와 '절벽'앞에서 그친 것은 '위태로운 잠'을 자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 즉 화석화된 자신의 의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태로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처음의 순간'을 찾아가기 위해 시인은, "귀는 깨우쳤지만 발은 길을 잃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시인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그에 앞서 시인은 우선 '위태

로운 잠'에서 깨우려 한다. '위태로운 잠'이란 조정권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정신'의 대척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신성을 찾아서

산정에서 하심 이후 '지상의 신성'을 찾는 조정권의 글쓰기는 이전에 비해서 보다 폭넓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은 대략 두 갈래의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산정묘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구도자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지상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삶의 세목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조정권은 이항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신성'과 '세속'의 세계를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이 양자가 한 곳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듯 하다. 그러한 가능성의 모색은 연작시 '뒤빙글 가는 길'로 시작되는데, 이 작품은 '신성한 숲'의 작품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작시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뒤빙글'의 주도적인 정서는 '간헐에 대한 의지'라고 요약 할 수 있는 바, 그것엔 "나는 간헐이었을 것이다/암반도 면벽도 없는 길에/"라는 구절로 입증된다. "암반도 면벽도 없는 길"이란 현실적 장애에 부딪쳐 좌절하거나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채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하겠다는 비장한 의지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비장

(8면에 계속)

제 11 회 동대문학상 수상작

평론부문 수상소감

“서툰 시작이
튼실한
열매 맺길”

구인모
(문과대 국문과)



내 앞은 배움과 어둡잡은 재주로 어떻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기쁜 마음이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바람과 진눈깨비의 기록)은 약 1년여 동안 준비해 왔다.

단지 신문사에서 주는 상을 받아보겠다는 어설픈 욕심에서가 아니라 보다 시를 바라보는 폭넓고 꼼꼼한 안목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글솜씨를 기르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그려는 가운데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웠다. 점에서 더욱 고마운 마음과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글 가운데서 채 감당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먼저 놓기만 한 듯해서 생각할수록 부끄럽기만 하다. 변명인지 몰라도 나는 여기에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 서툰 시작으로 언젠가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분에 넘치는 상을 주신 홍기상 선생님, 언제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결점을 바로잡아 주시는 장영주 선생님께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언제나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준 김기중 형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서정적 자아는 당나귀 주인과 당나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한 사람이며, 비록 시의 말미에서 보이는 서정적 자아의 감정 투영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관찰’이라는 서정적 자아의 자세로 객관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경권 시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형식상의 변화는 지상의 현실이 보여주는 황폐성과 잔인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전환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는 앞서 조경권의 하산과정을 추적하며 살펴본오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신성한 숲’이 이전의 시집들과 비교해서 분명한 변별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연작시 ‘뒤편 가는 길’에서 불림어리를 가두는 얼음, 혹은 당나귀에게 굶주림을 강요하는 현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며 구체화 되는데, 그 가운데 ‘악마’는 거대 집단 안에서 개인이 지니는 가치와 그 사이에서 벗어지는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7면에 이어서)
한 의지는 ‘감해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시제를 통해서 보다 분명해 지며, 내 번째 시 ‘봄날의 땅, 대지, 강을 거닐며’에 이르러 ‘찾음’이라는 행위로 구체화 된다. ‘얼음구멍이 얼음장을 깨뜨리며 나를 찾는다’/오, 얼음속 거기/활활 간헐 불꽃들이/너는 거기에 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조경권이 숨겨둔 호응을 짚어내려 찾아내려 한 것은 결국 ‘불꽃들이’이다. 이 불꽃들이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얼음’이라는 극악한 환경속에서도 타오르고 있다. 그것은 알박에도 면박에도 굴하지 않으려는 작가 의식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작시 ‘뒤편 가는 길’에서 정서적인 ‘비장한 의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산경을 향해 오르던 조경권의 구도자적 의지가 결코 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것은 여섯번째 시 ‘내 몸의 천국의 살풍경으로 그 의미가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6. 내 몸의 천국
당신이 독일 여행중 슈투트가르트 지방을 지나게 된다던 뒤편 가는 길의 주도적 당나귀를 만나보라/그 당나귀는 사람의 얼굴과 닮았어 곧 눈에는 빛 것이다/당나귀 주인은 관광객들을 향해 늘 곡절이 되겠다./자, 이 당나귀는 울안에서 얼음 동안 갈겨 살며 졸졸 굶는 모기를 보여왔구나/보십시오, 이 비무한 먹고 배만 남은 짐승을/제가 이 가련한 나귀에게 시냇물/호미를 조금만 먹여보겠습니다/만일 이 짐승이 호밀에 입을 댄다면 두 배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이 돈을 걸지만/당나귀는 먹지 않는다
(종락)
그는 눈을 감는다/고개를 돌린다/그는 몸 안의 굶주림을 키워 수치심을 먹는다/그를 먹여 살리는 것은 노예/그가 입을 벌려 먹으며 할 때 공중으로 날아떨어지는 이 현실/호미를 흔들어 내는 이 현실/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나 호밀을 눈 앞에서 밟아버리고 조롱하는 이 현실이/나에게는 또 하나의 악몽이다.

어쩌다 머리에서/일이 돌아났는지/그날은 오후 졸 늦은 시간/서늘함을 들지는데 실이 풀처럼/줄음이 왔다/잠깐 잠든 그 사이에 누가/장난을 친 것이다/나야 사람이 된 이마를 들고/머리위로 비죽 솟아나온 일사귀/ (종락)
그날부터 그는 모자를 쓰고 다녔다/자네와 모자를 쓰고 근무하/그는 신성한 분위기에 방해하는 주는 모자가 미안해/머리를 숙였다/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종락)
그는 시말서를 제출했다/복무 규정 및 조주의 촉구/하지만 그는 모자를 벗을 수가 없었다/... (종락)...모자를 벗어놓고, 도대체 그 속에/무엇을 숨기고 다니나?/어서 모자를 벗어/그는 벗지 않는다. 그는 벗지 않는다/이건 평형이야, 아서 벗기만 말아/의자?/ 나뭇잎이 그 그의 두 팔은 그의 두 다리는 묶여있고/그는 차라리 두 눈을 감아버린다/모자는 벗겨진다/벌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듯/감사관의 눈도 휘둥그레진다/아무것도 없는 머리/ 악마

‘뒤편 가는 길’에서 인용한 시에 등장하는 당나귀는 그 일꾼이 사람과 닮았다는 점에서 시인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초상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당나귀가 입을 벌려 먹으며 할 때 공중에서 날아떨어지는 현실, ‘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나 호밀을 눈앞에서 밟아버리고 조롱하는’ 현실은 바로 불평여리를 가두는 얼음이다. 그러나 굶주림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먹기를 거부하는 당나귀의 노여움은 얼음구멍에서 불평여리를 찾아내는 치열함의 다른 이름이다. 이것이 ‘악몽과 같은’ 현실에서 자기 내면적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동안 시인의 작품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조경권이 즐겨 사용했던 서정적 자아의 주관적 정서, 표출이나 심상을 통한 묘사의 진술방식이 아니라 실상을 통한 묘사의 진술방식이 달라 일정한 즐거움을 가진 이야기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상의 변화는 많은 점을 시사해 주는데, 그것은 서정적 자아가 세계를 관찰하는 위치에서 세계 안에서 있는 관찰자의 위치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시술적 자아의 위치 이동은 그동안 주관적인 자세와는 달리 시작 진술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획득하게 한다. 위에서 인용한 ‘내 몸의 천국’의 경우를 통해서 ‘나’라는

려는 방어 기제로서의 모자는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소재인데, 그 소재의 설정에서 조경권의 시적 상상력이 지니는 장신함과 시니컬한 작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서정적 자아인 ‘그’의 머리에 난 ‘일사귀’는 앞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 혹은 도구화된 인간의 생명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일사귀’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모자로 그것을 가리려 한다. 그러나 ‘모자’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 투서는 물론, 감사관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행동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감사관’이 ‘그’와 심한 몸싸움 끝에 모자를 벗겨보면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결국 ‘그’의 모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불만과 혐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다. 그리고 ‘그’의 ‘일사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악마’가 희사라는 조적이 그 규범에서 일탈하는 구성원에게 찍는 격인이라는 것, ‘감사관’이 예수에게 박해를 가했던 본디요 빌라도로 비유되고 있는 것에서 그 폭력성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가늠하게 한다.

조경권은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 체제의 하위위상이 보이는 잔인함과 폭력성을,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지는 개인과의 갈등과 소외에 대한 문제를 ‘국립현대미술관’, ‘투란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거듭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 ‘국립현대미술관’은 경찰관의 보고서 투의 간헐한 문체를 통해서 정면된 작품형식을 보여준다. 관정을 박물관, 혹은 신전으로, 경찰관을 ‘상장을 든 수위’로 비유한 것이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명화’, 혹은 성배로 비유한 것 또한 앞서 언급한 작가의 시니컬한 시선이 빛어 주는 황폐성과 잔인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전환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는 앞서 조경권의 하산과정을 추적하며 살펴본오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신성한 숲’이 이전의 시집들과 비교해서 분명한 변별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연작시 ‘뒤편 가는 길’에서 불림어리를 가두는 얼음, 혹은 당나귀에게 굶주림을 강요하는 현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며 구체화 되는데, 그 가운데 ‘악마’는 거대 집단 안에서 개인이 지니는 가치와 그 사이에서 벗어지는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어쩌다 머리에서/일이 돌아났는지/그날은 오후 졸 늦은 시간/서늘함을 들지는데 실이 풀처럼/줄음이 왔다/잠깐 잠든 그 사이에 누가/장난을 친 것이다/나야 사람이 된 이마를 들고/머리위로 비죽 솟아나온 일사귀/ (종락)
그날부터 그는 모자를 쓰고 다녔다/자네와 모자를 쓰고 근무하/그는 신성한 분위기에 방해하는 주는 모자가 미안해/머리를 숙였다/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종락)
그는 시말서를 제출했다/복무 규정 및 조주의 촉구/하지만 그는 모자를 벗을 수가 없었다/... (종락)...모자를 벗어놓고, 도대체 그 속에/무엇을 숨기고 다니나?/어서 모자를 벗어/그는 벗지 않는다. 그는 벗지 않는다/이건 평형이야, 아서 벗기만 말아/의자?/ 나뭇잎이 그 그의 두 팔은 그의 두 다리는 묶여있고/그는 차라리 두 눈을 감아버린다/모자는 벗겨진다/벌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듯/감사관의 눈도 휘둥그레진다/아무것도 없는 머리/ 악마

이 시대에는 이미 일체의 집단으로부터 격리된 순수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층위의 집단의 교차에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어떤 형태의 조직과 집단든지 원천적으로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편이든 불구하고, 그 각각의 집단은 나름의 위계와 규율을 지니고 있다. 이 위계와 규율은 그 성격상 강요의 형태를 띠기 마련인데, 대체로 그것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위임한 의사와 그 결정권한을 왜곡된 형태로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심리적 유대나 친교를 위한 집단보다는, 자본의 증식과 확산, 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집단일수록 그 목적이 지니는 비중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을 도구화 수단화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마련이다. 조경권은 이 작품에서 ‘희사’라는 낯설지 않은 이익집단을 확립적이고 단선적인 규범체계가 조직원 각자에게 강요하는 비개성화, 규격화를 형성화한다. 앞서 조경권의 새로운 글쓰기로 지적한 바 있는 ‘서사적으로 보여주기’방식은 이 작품에서 높은 완성도를 성취한다. 그 완성도는 ‘그’와 주변 인물들의 성격, 행동이 보이는 상징성과 ‘그’와 ‘감사관’이 보이는 분명한 갈등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규범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주제성, 개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일사귀’와 굳이 그것을 감추

조경권은 자신의 파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궁핍한 설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세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형

상화하고 있다. 특히 ‘서로의 밤에 가래침을 뱉는’ 시대의 궁핍함이 ‘(더이상) 갈 곳 없는 심연’으로 갈 것이라는 시인의 예언자적인 선언은 이런 악몽과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우리 시대 인간의 삶이 당면한 자기당착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 아니 그 가능성조차 없다는 작가의 선언은 우리를 깊은 절망을 안기 때문에 모자로 그것을 가리려 한다. 그러나 ‘모자’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 투서는 물론, 감사관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행동까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감사관’이 ‘그’와 심한 몸싸움 끝에 모자를 벗겨보면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결국 ‘그’의 모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불만과 혐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다. 그리고 ‘그’의 ‘일사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악마’가 희사라는 조적이 그 규범에서 일탈하는 구성원에게 찍는 격인이라는 것, ‘감사관’이 예수에게 박해를 가했던 본디요 빌라도로 비유되고 있는 것에서 그 폭력성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가늠하게 한다.

조경권은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다양한 종류의 조직과 체제의 하위위상이 보이는 잔인함과 폭력성을,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지는 개인과의 갈등과 소외에 대한 문제를 ‘국립현대미술관’, ‘투란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거듭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 ‘국립현대미술관’은 경찰관의 보고서 투의 간헐한 문체를 통해서 정면된 작품형식을 보여준다. 관정을 박물관, 혹은 신전으로, 경찰관을 ‘상장을 든 수위’로 비유한 것이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명화’, 혹은 성배로 비유한 것 또한 앞서 언급한 작가의 시니컬한 시선이 빛어 주는 황폐성과 잔인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방법적 전환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는 앞서 조경권의 하산과정을 추적하며 살펴본오던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신성한 숲’이 이전의 시집들과 비교해서 분명한 변별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연작시 ‘뒤편 가는 길’에서 불림어리를 가두는 얼음, 혹은 당나귀에게 굶주림을 강요하는 현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며 구체화 되는데, 그 가운데 ‘악마’는 거대 집단 안에서 개인이 지니는 가치와 그 사이에서 벗어지는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어쩌다 머리에서/일이 돌아났는지/그날은 오후 졸 늦은 시간/서늘함을 들지는데 실이 풀처럼/줄음이 왔다/잠깐 잠든 그 사이에 누가/장난을 친 것이다/나야 사람이 된 이마를 들고/머리위로 비죽 솟아나온 일사귀/ (종락)
그날부터 그는 모자를 쓰고 다녔다/자네와 모자를 쓰고 근무하/그는 신성한 분위기에 방해하는 주는 모자가 미안해/머리를 숙였다/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종락)
그는 시말서를 제출했다/복무 규정 및 조주의 촉구/하지만 그는 모자를 벗을 수가 없었다/... (종락)...모자를 벗어놓고, 도대체 그 속에/무엇을 숨기고 다니나?/어서 모자를 벗어/그는 벗지 않는다. 그는 벗지 않는다/이건 평형이야, 아서 벗기만 말아/의자?/ 나뭇잎이 그 그의 두 팔은 그의 두 다리는 묶여있고/그는 차라리 두 눈을 감아버린다/모자는 벗겨진다/벌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듯/감사관의 눈도 휘둥그레진다/아무것도 없는 머리/ 악마

이 시대에는 이미 일체의 집단으로부터 격리된 순수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층위의 집단의 교차에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어떤 형태의 조직과 집단든지 원천적으로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편이든 불구하고, 그 각각의 집단은 나름의 위계와 규율을 지니고 있다. 이 위계와 규율은 그 성격상 강요의 형태를 띠기 마련인데, 대체로 그것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위임한 의사와 그 결정권한을 왜곡된 형태로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심리적 유대나 친교를 위한 집단보다는, 자본의 증식과 확산, 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집단일수록 그 목적이 지니는 비중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을 도구화 수단화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마련이다. 조경권은 이 작품에서 ‘희사’라는 낯설지 않은 이익집단을 확립적이고 단선적인 규범체계가 조직원 각자에게 강요하는 비개성화, 규격화를 형성화한다. 앞서 조경권의 새로운 글쓰기로 지적한 바 있는 ‘서사적으로 보여주기’방식은 이 작품에서 높은 완성도를 성취한다. 그 완성도는 ‘그’와 주변 인물들의 성격, 행동이 보이는 상징성과 ‘그’와 ‘감사관’이 보이는 분명한 갈등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규범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주제성, 개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일사귀’와 굳이 그것을 감추

조경권은 자신의 파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궁핍한 설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세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형

기독교적 상상력과 그 의미

‘빛’으로 둘러싸인 ‘새벽의 숲’라는 신화적 공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 이외에도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시사한다. 우선 ‘새벽의 숲’으로 가는 서정적 자아의 자세는 ‘산정’을 오르던 그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 ‘신성’의 세계를 찾아가는 길은 다름 아닌 ‘그분’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또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은 바로 ‘근원’을 찾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세로 ‘육신을 버리는’ 일종의 통과례가 전제된다. 이 통과례를 통해서 비로소 ‘신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산정묘지’에서 ‘산정’을 오르던 서정적 자아의 자세가 옹골찬 기개로 표현되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작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사에서 아해와 만나는 일련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호렙산의 불꽃에 대피하지 않고 불꽃에 발신하는 나무와 인용한 시의 ‘빛’, 그리고 모세가 만나는 아해의 음성과 인용한 시의 ‘저 위’의 ‘음성’이 서로 대칭되는 것은 그 유사성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연작시 ‘신성한 숲’이 기독교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상상력은 연작시 ‘신성한 숲’의 ‘노아의 방주’, ‘라이프라이프’ 등 작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조경권의 시가 불교나 노장사상과 같은 동양적 사유체계에서 자양을 얻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경권이 바라보는 지상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월자들’, ‘노아의 방주’, ‘악마’ 등의 작품에서 세계와 인간이 처해 있는 종말론적 상황은 기독교적 상상력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은 ‘어둠’으로 단단히 결박된 (신성한 숲 2) 지상의 황폐함에 대응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작가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이 세계와 인간이 처한 종말론적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단지 ‘신’이라는 구원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초한 것은 아니다. 조경권은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연작시 ‘신성한 숲’에서 ‘신성’을 위한 통과례를 ‘육신을 버리는 것’, 즉 ‘신에 의한 구원’보다도 서정적 자아의 구도자적 의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이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라기 보다 세계와 인간이 처해 있는 종말론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론적 전환임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다. 연작시 ‘신성한 숲’에 나타난 서정적 자아의 초상으로서 자체도 이 방법론의 전환에 연유하는 것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우리는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이 그의 정신적 자양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새는 한 뿌리로 두 가지의 별레를 동시에 쫓아먹을 수 없지만, 시인은 한 시기에 몇 개의, 세계를 실패해 나갈 수 있다’는 시집 ‘하늘이불’의 서문은 불교, 노장사상 그리고 기독교를 넘나드는 조경권의 상상력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또한 이 연작시 ‘신성한 숲’에 등장하는 구약서적 ‘출애굽기’의 인용을 통해서도 조경권의 고전적 자양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있다.

어쩌다 머리에서/일이 돌아났는지/그날은 오후 졸 늦은 시간/서늘함을 들지는데 실이 풀처럼/줄음이 왔다/잠깐 잠든 그 사이에 누가/장난을 친 것이다/나야 사람이 된 이마를 들고/머리위로 비죽 솟아나온 일사귀/ (종락)
그날부터 그는 모자를 쓰고 다녔다/자네와 모자를 쓰고 근무하/그는 신성한 분위기에 방해하는 주는 모자가 미안해/머리를 숙였다/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종락)
그는 시말서를 제출했다/복무 규정 및 조주의 촉구/하지만 그는 모자를 벗을 수가 없었다/... (종락)...모자를 벗어놓고, 도대체 그 속에/무엇을 숨기고 다니나?/어서 모자를 벗어/그는 벗지 않는다. 그는 벗지 않는다/이건 평형이야, 아서 벗기만 말아/의자?/ 나뭇잎이 그 그의 두 팔은 그의 두 다리는 묶여있고/그는 차라리 두 눈을 감아버린다/모자는 벗겨진다/벌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듯/감사관의 눈도 휘둥그레진다/아무것도 없는 머리/ 악마

이 시대에는 이미 일체의 집단으로부터 격리된 순수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층위의 집단의 교차에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어떤 형태의 조직과 집단든지 원천적으로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편이든 불구하고, 그 각각의 집단은 나름의 위계와 규율을 지니고 있다. 이 위계와 규율은 그 성격상 강요의 형태를 띠기 마련인데, 대체로 그것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위임한 의사와 그 결정권한을 왜곡된 형태로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심리적 유대나 친교를 위한 집단보다는, 자본의 증식과 확산, 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집단일수록 그 목적이 지니는 비중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을 도구화 수단화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마련이다. 조경권은 이 작품에서 ‘희사’라는 낯설지 않은 이익집단을 확립적이고 단선적인 규범체계가 조직원 각자에게 강요하는 비개성화, 규격화를 형성화한다. 앞서 조경권의 새로운 글쓰기로 지적한 바 있는 ‘서사적으로 보여주기’방식은 이 작품에서 높은 완성도를 성취한다. 그 완성도는 ‘그’와 주변 인물들의 성격, 행동이 보이는 상징성과 ‘그’와 ‘감사관’이 보이는 분명한 갈등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규범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주제성, 개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일사귀’와 굳이 그것을 감추

조경권은 자신의 파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궁핍한 설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세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형

‘매월자들’

권의 글쓰기가 물질화된 기술문명의 대척점으로서 자연을 신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세계와 인간의 비의를 형상화 한다는 점에서 동시대 여타의 작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특히 조경권의 ‘미덕’은 그의 작품세계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의 ‘빛’으로 가는 서정적 자아의 자세는 ‘산정’을 오르던 그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 ‘신성’의 세계를 찾아가는 길은 다름 아닌 ‘그분’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또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은 바로 ‘근원’을 찾기 위해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세로 ‘육신을 버리는’ 일종의 통과례가 전제된다. 이 통과례를 통해서 비로소 ‘신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산정묘지’에서 ‘산정’을 오르던 서정적 자아의 자세가 옹골찬 기개로 표현되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작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사에서 아해와 만나는 일련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호렙산의 불꽃에 대피하지 않고 불꽃에 발신하는 나무와 인용한 시의 ‘빛’, 그리고 모세가 만나는 아해의 음성과 인용한 시의 ‘저 위’의 ‘음성’이 서로 대칭되는 것은 그 유사성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연작시 ‘신성한 숲’이 기독교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상상력은 연작시 ‘신성한 숲’의 ‘노아의 방주’, ‘라이프라이프’ 등 작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조경권의 시가 불교나 노장사상과 같은 동양적 사유체계에서 자양을 얻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또한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경권이 바라보는 지상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매월자들’, ‘노아의 방주’, ‘악마’ 등의 작품에서 세계와 인간이 처해 있는 종말론적 상황은 기독교적 상상력과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은 ‘어둠’으로 단단히 결박된 (신성한 숲 2) 지상의 황폐함에 대응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작가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이 세계와 인간이 처한 종말론적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 단지 ‘신’이라는 구원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초한 것은 아니다. 조경권은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연작시 ‘신성한 숲’에서 ‘신성’을 위한 통과례를 ‘육신을 버리는 것’, 즉 ‘신에 의한 구원’보다도 서정적 자아의 구도자적 의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이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라기 보다 세계와 인간이 처해 있는 종말론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론적 전환임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다. 연작시 ‘신성한 숲’에 나타난 서정적 자아의 초상으로서 자체도 이 방법론의 전환에 연유하는 것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우리는 조경권의 기독교적 상상력이 그의 정신적 자양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새는 한 뿌리로 두 가지의 별레를 동시에 쫓아먹을 수 없지만, 시인은 한 시기에 몇 개의, 세계를 실패해 나갈 수 있다’는 시집 ‘하늘이불’의 서문은 불교, 노장사상 그리고 기독교를 넘나드는 조경권의 상상력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또한 이 연작시 ‘신성한 숲’에 등장하는 구약서적 ‘출애굽기’의 인용을 통해서도 조경권의 고전적 자양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있다.

어쩌다 머리에서/일이 돌아났는지/그날은 오후 졸 늦은 시간/서늘함을 들지는데 실이 풀처럼/줄음이 왔다/잠깐 잠든 그 사이에 누가/장난을 친 것이다/나야 사람이 된 이마를 들고/머리위로 비죽 솟아나온 일사귀/ (종락)
그날부터 그는 모자를 쓰고 다녔다/자네와 모자를 쓰고 근무하/그는 신성한 분위기에 방해하는 주는 모자가 미안해/머리를 숙였다/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종락)
그는 시말서를 제출했다/복무 규정 및 조주의 촉구/하지만 그는 모자를 벗을 수가 없었다/... (종락)...모자를 벗어놓고, 도대체 그 속에/무엇을 숨기고 다니나?/어서 모자를 벗어/그는 벗지 않는다. 그는 벗지 않는다/이건 평형이야, 아서 벗기만 말아/의자?/ 나뭇잎이 그 그의 두 팔은 그의 두 다리는 묶여있고/그는 차라리 두 눈을 감아버린다/모자는 벗겨진다/벌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듯/감사관의 눈도 휘둥그레진다/아무것도 없는 머리/ 악마

이 시대에는 이미 일체의 집단으로부터 격리된 순수한 개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층위의 집단의 교차에서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어떤 형태의 조직과 집단든지 원천적으로 집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편이든 불구하고, 그 각각의 집단은 나름의 위계와 규율을 지니고 있다. 이 위계와 규율은 그 성격상 강요의 형태를 띠기 마련인데, 대체로 그것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위임한 의사와 그 결정권한을 왜곡된 형태로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간의 심리적 유대나 친교를 위한 집단보다는, 자본의 증식과 확산, 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집단일수록 그 목적이 지니는 비중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을 도구화 수단화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마련이다. 조경권은 이 작품에서 ‘희사’라는 낯설지 않은 이익집단을 확립적이고 단선적인 규범체계가 조직원 각자에게 강요하는 비개성화, 규격화를 형성화한다. 앞서 조경권의 새로운 글쓰기로 지적한 바 있는 ‘서사적으로 보여주기’방식은 이 작품에서 높은 완성도를 성취한다. 그 완성도는 ‘그’와 주변 인물들의 성격, 행동이 보이는 상징성과 ‘그’와 ‘감사관’이 보이는 분명한 갈등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규범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주제성, 개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일사귀’와 굳이 그것을 감추

조경권은 자신의 파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궁핍한 설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세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형

‘매월자들’

동대 학술상

1997년 1월 1일 (수요일)

제 1215 호 특 점 9

인문과학부본 본상 수상작

후설의 현상학에 관한 새로운 이해

I 들어가는 말: 고전적 인식론의 한계와 현상학

철학이 인간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소크라테스의 시대로부터 인식론은 여러 가지의 각기 다른 노선을 가진 철학자들에게 의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 이후로 여러 철학자들에게 의하여 인식론은 하나의 이론적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철학이라는 학문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고전적 견해에 따라 인간의 의식과 그 외부 세계, 그리고 그 실천적 영역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개별적 체계로 말할 수 없음을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일찍이 이루어진 인식론은 단순히 인간의 인식 구조나 양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적절한 논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그럴듯한 결론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실천적인 측면인 양위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론을 제시했던 철학자들의 인간 인식의 분석에 대한 기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인식론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하나의 이론적 영역으로 규정된 이래로 인간의 의식 주관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형태의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데카르트가 이성주의적 관념론으로 세계를 탐구하려고 했던 노력은 그의 수학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로크의 경험론 하에 인간 인식 구조와 양의 형성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 즉 합리론자와 경험론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철학적 노선을 선택하고 있었고, 이러한 두 가지의 상이한 이론을 칸트가 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轉回)라는 구성설적(構設的) 인식론으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칸트의 인식 이론은 우리의 양이 경험과 함께 출발한다는 데에 출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칸트는 출과는 달리 능동적 통인으로서의 정신은 그것이 경험하는 대상들과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으며, 정신이 그것의 인식 방법을 그 대상들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의 양의 대상은 주관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사물 자체가 아니라 지각 내용이라는 것에 경험론자와 동의하고 있으며, 합리론자인 데카르트가 말하는, 우리가 명성 판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념을 시간과 공간-물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유와 연장이었지만-이라는 의식의 구조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는 양자의 인식 구조를 받아들여 통일적인 것으로써 더 완전한 인식 이론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뉴턴 물리학에 대한 호의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종합적인 synthetic 명제들의 불확실성을 선천적인 apriori 명제들의 확실성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확실성을 지닌 종합 판단, 즉 선천적-종합 판단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또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견해는 이전의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자들에게 반대하고 인간 정신이 결코 넘어서 수 없는 한계를

규정한 것이었으며, 또 그러한 인간 정신은 우리의 감각 세계와 관계된 현상계에만 국한된 것이었다. 그 결과 그에게는 현상계 이외의 세계인 물자체의 세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궁극적 실체인 물자체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모순적인 이원론으로 전개되어 버리고 말았다.

칸트의 이러한 한계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식의 방법론적 문제, 예를 들자면 선천적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에포케(Epoché)의 반성적-방법적 태도와 그리고 바로 이 태도에서 드러나는 '상관관계'의 이념이 없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선형철학을 구현하려면 그의 철학적 노력은 도중하차하고 단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의 실재는 인식론에 대한 방법론적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임을 또한 놓치지 말아야겠다.

어쨌거나 칸트의 이러한 인식론의 한계 때문에, 철학이 증세에 신학의 시나리오를 복사했던 암흑기에서 벗어나 르네상스 이후 되찾은 위상을, 근세의 말기에 이르러 과학의 성과에 의해 다시금 과학의 기생 학문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맞게 되고 말았다. 19세기말의 과학의 진보는 철학에 상당한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즉, 과학의 진보는 철학이 화두로 삼고 있는 객관적 인식에 이르는 문제 및 존재론의 문제들이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과학의 성공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다른 인문, 사회과학들에 적용하게 하였으며, 이른바 '실증주의(positivism)'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 이외의 다른 인문, 사회과학을 이끌어 갔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이같은 변형은 그 탐구를 확고하고 객관적인 지반 위에 올려놓은 듯이 생각되었다." 특히 실증주의적 경향은 인간의 의식 주관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행했던 심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리학은 인식론의 전제인 인간의 의식과 인식특성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엄격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상은 철학이 과학에 의해 대체되었고, 철학은 더 이상 그것의 고전적인 역할을 맡아 대하지 못하였고 사물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러한 생각은 과학의 방법과 논리는 인식의 모방일 뿐 아니라 철학적 탐구의 유일한 주제라고 주장해 왔던 수많은 철학자들과 철학적 성향을 띤 과학자들의 심성을 사로잡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이제 철학은 과학에 기생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철학 고유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철학에 대한 푸대접을, 물론 칸트의 인식론의 한계 때문 만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인식론이 의식의 주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실증적으로 연구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동안 인식의 한계만을 규정할 채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철학이 바로 후설(E. Husserl)의 현상학이다. 현상학은 과학의 성과를 거부하지 아니할뿐더러 과학의 힘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상학이 문제삼았던 것은 과학적 인식이 주관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하는 주장이었다. 인간이 양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의적 실제 이전

에 자신의 내적 의식 주관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후설은 이러한 의식의 주관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method of doubt)로 돌아간다. 그는 아마도 데카르트의 시도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필자는 이 글에서 후설의 현상학이 철학이라는 학문으로서 당시의 실증주의적 과학에 대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었는지, 이른바 '현상학적 환원', 혹은 '판단 중지'라고 하는 그의 인식 이론의 방법론적 측면들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환원론으로서의 판단 중지가 데카르트의 자아와 지향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하여 후설이 왜 인간이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을 사실(事實)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또 올바른 인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현상학에 있어서 탐구의 진정한 영역으로 들고 있는 생활 세계의 영역이 이전의 대상 영역과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할 것이다.

II 현상학의 이념

1.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의 요구
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근세 이후 철학을 포함한 제계별과학의 문제점은 그것의 판단의 기준을 '실증적인 명료성'에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요컨대 "제계별과학은 탐구 절차상의 정밀성에 더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의문시되지 않고 명중적으로 정조될 수 없는 전제를 언제나 방치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표방하는 이 정밀성(精確性)이라는 것은 수학적, 즉 양적으로 측정하여 수학화할 수 있는 정밀성을 뜻하므로, 이것이 학문의 명료성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진정한 학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후설은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이 정초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그의 연구 전제에 있어서 근본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후설은 근대 과학의 극단으로 밝혀진 두 사상 조류, 자연주의(Naturalismus)와 역사화주의(Historicism)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주의와 역사화주의에 대한 비판, 즉 학문에 대한 실증적 태도에 대한 비판은 그의 (현상학의 이념)에서 수행한 '자연적 학문'과 '철학적 학문'사이의 구별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는 여기에서 자연적 학문은 인식 비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철학적 학문은 인식 비판, 즉 의식이 실제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자를 구별한다. 말하자면, 자연적 학문은 그것의 명중성에 대하여 확실성을 검토할 방법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제반 학문의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인간 의식의 모든 영역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인 현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적 학문, 즉 당시의 실증적 과학의 방법은 그 지식의 명중성에 단지 개인성만을 보장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확실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 실증 과학자들이 하는 작업은 지금까지의 개인성을 검토되지 않은 사실에 확대 적용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실

증적 과학은 이 '사실과 맞아떨어짐'이라는 명중성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후설은 주장한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실과 맞아떨어짐'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고전적 개념인 '사유와 실제의 일치'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설이 현상학을 진리의 고전적 개념의 성취 도구로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가 확고하고자 하는 철학의 이념, 즉 현상학의 이념이 자연적 학문에 대한 명중성을 검토하는 도구로 사용됨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단계로 자연적 학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중성에 대한 기준의 설정을 명확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2. '자연주의(Naturalismus)'와 '역사화주의(Historicism)'의 비판

후설의 철학은 서구 문화가 참된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다는 그의 깊은 확신에서 성장했다. 갈릴레오가 받아들인 기하학적인 방법은 "자연의 기본적인 과정이 관찰가능하며, 수학적인 계산 및 기술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낳았고, 또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만들어진 운동중인 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적 모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낳았다." 이러한 가정과 순수 수학의 기하학적 방법은 갈릴레오에게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그는 자연에 관하여 이러한 보편적 진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그 속에 속하는 모든 물체들을 추상을 통하여 이념화, 수학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물의 형태만을 수학화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물의 형태를 채우고 있는 질료, 예를 들면 질적 감각조차도 간접적으로 수학화함으로써 자연 자체를 "수학적인 전체"로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상은 그 후계자들,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의 물리학자들 전체에 즉시 계승되었다."

근세 초에 등장한 이 순수 수학이 자연 과학에 변종으로써 수학적 자연과학, 합리적 객관주의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논리는 물리적 대상에만 적용되지 않고, 특히 그 질적 향상 때문에 정신을 수학화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정신을 자연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미 살펴보았듯이 실증적 과학은 분명히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철학, 특히 후설이 말하는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이 관여하는 영역인 자연적 학문의 문제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논리는 물리적 대상에만 적용되지 않고, 특히 그 질적 향상 때문에 정신을 수학화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정신을 자연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미 살펴보았듯이 실증적 과학은 분명히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철학, 특히 후설이 말하는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이 관여하는 영역인 자연적 학문의 문제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논리는 물리적 대상에만 적용되지 않고, 특히 그 질적 향상 때문에 정신을 수학화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해 정신을 자연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34회 학술상 입상작 발표

◇인문과학부본: 본상= 후설의 현상학에 관한 새로운 이해
남정우(문과대 철3)
佳作= 통일신라시대 탐비에 대한 고찰
신용철(인문대 고고미술사 2)

◇사회과학부본: 본상= 강택민 체제의 정책기조와 그 변화
황보영(사과대 정외3)
佳作= 사회과학의 '대안적'방법론을 위한 단상
임한철(사과대 정외3)

◇자연과학부본: 본상= 생태적응의 시대와 김보현(생자대 석자3)
佳作= 남산의 삼림식생구조 및 삼림동태분석에 관한 연구
정명준(생자대 산자 4)

◇심사위원
인문과학부본: 서운길(불교대 불교학과교수), 양문훈(문과대 철학과교수), 송재운(문과대 국문과교수), 신용철(사법대 역교과교수)
사회과학부본: 유광진(사과대 정외교 교수), 황태연(사과대 정외교교수) 고유환(사과대 북한학과교수), 차수련(경상대 경영학과교수)
자연과학부본: 김용욱(생자대 석자과교수), 김창호(생자대 산자과교수)

종이었다. 심리학의 법칙들은 소위 '자연적인'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 귀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경험적인 보편화에 이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심리학주의는 정신적, 심적인 것의 전체 차원을 오직 경험적인 수단으로 물리적 자연의 통일된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주의는 경험적, 실용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식으로부터 독립된 사고 대상과 사고 법칙의 차원을 부정하고 이것을 실재적인 심적 의식의 단순한 산물로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주의적 경향으로 의식 주관성을 연구하는 것의 오류는, 실증주의 자체가 자신의 탐구영역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은 물론이거니와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의식 주관성을 탐구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그 학문 자체 내부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학문적 방법의 이상(理想)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심리학은 의식 주관성의 고유한 본질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리학의 모든 연구는, 이른바 '주관성의 배리(背理)'가 보여주는 '주관성의 수수께끼'라는 난문제로 부딪게 된다. 한편 후설은 비판되어야 할 또 하나의 전형(典型)으로 역사화주의를 이야기한다. 이것 또한, 하나의 제한된 지식 영역으로부터 그 영역을 넘어서 나아가는 요구가 제기되는 데 그 오류가 있다.

역사화주의자들의 요구는, 사실적(事實的)인 정신사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서 밝혀낸 법칙을 전체 정신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역사화주의는 경험적으로 발견한 구조에서 출발하므로 인류사에서는 한 정신 조류가 다른 정신 조류를 해체시킨다는 확신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 상대적인 시간은 정신적인 것을 오직 사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도록 만든다. 역사화주의자는 한 사람의 정신과 역사적 대수의 정신 조류를 등한시하고, 정신적인 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경험적인 형식을 지니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는라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관

찰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체계들로부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 체계 자체가 변화될 수 없다는 전제를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관찰하고 증명한 자연의 법칙(law of nature)을 토대로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예견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거에 발견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안에 미래의 확실성에 관한 어떠한 근거도 지니지 못한다. 누가 자연의 법칙 자체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만일, 인자할 수 있는 모든 계기들을 최대한으로 조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 들어맞는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 내는 데에 있어 귀납적 법칙은 그 자체 총체성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완전성이 따라나오지는 못한다.

후설의 이 두 가지의 비판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실증적 학문의 영역이 스스로의 영역을 넘어서는 철학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초월은 사실상 실증적 학문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서, 그리고 각 학문 영역의 한계가 규정되지 못함으로써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나친 믿음과 무규정성은 그 스스로의 오류에 의하여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고 만다.

III. 본질적으로 나아가기

후설은 이전의 인식론의 관념적, 독단적인 전제인 사변적 구성을 반대하고 '사상 그 자체에!'('zu den Sachen selbst')를 표방하며, 인식의 방법론적 이념을 체계화하여 현상학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현상학의 목표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선입견을 떠나서 직접적인 소여(所與)의 사실(事實)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술하는데 있다. 그는 또한 철학을 엄밀한 학으로서 규정하려 하였으며, 그로부터 현상학적 방법론이 철학의 한 운동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의 철학의 특징은 기존의 철학 체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전제성을 투구하는 엄밀한 태도에서 의식에 명중적으로 직접 주어질 사태와 문제 자체를 드러내어 밝히는 '제1 철학'이다. (10면에 계속)

인문과학부본 심사평

후설의 문제의식 이해 돋보여 부정확한 개념·논리비약 등 흠

남정우군(후설의 현상학에 관한 새로운 이해)은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전개한 현상학에 관한 이해를 보여 주고 있다. 후설은 그 당시의 철학의 풍조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그러한 비판적 작업을 통해 철학 및 그외의 학문에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후설의 이러한 현상학을 남정우군은 고전철학자들 및 고전철학적 문제·의미와의 연관에서 자신의 이해를 무리없이 논하고 있다.

남정우군의 (후설의 현상학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는 아주 드물지만 부분적으로 개념 사용에서 정확하지 못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비약을 보이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학부학생으로서 철학의 문제를 철학사적 연관에서나, 그 주제에 집중해서 문제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는 점에서 이미 우수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최 인 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인문과학부본 심사평

통일신라시대 탐비에 미술사적 조형 구체적·사례 미흡...일반론에 그쳐


신용철군의 (통일신라시대 탐비에 대한 고찰)은 통일신라시대 탐비에 대한 미술사적 조형을 시도한 논문이다. 지금까지 탐비에 대한 연구는 금석학적조사 연구에 머물고 있었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탐비는 금석학적 자료로서 중요할뿐 아니라 탐비의 조각수법등의 우수성에 미루어 미술사적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논자의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관계논문들을 나름대로 많이 조사하여 이 분야의 지식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자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는것도 내세우려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것이 있다면 연구의 핵심이 일반론에 머물고 구체적 사례를 통한 양식사의 변천이나 탐비 조각의 유형고찰이 부족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가작으로 선정했다.

홍 윤 식
(사범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인문과학부본 당선소감

“인문과학적 사고방식에 관심을...”



남 정 우
(문과대 철학과)

이 시대에 인문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물리적인 열악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외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구조화되어 있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러한 열악한 시대에 이러한 구조화에 대한 의욕을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인문과학적 사고방식의 전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의 해결이 인문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순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의욕이 영원한 의욕으로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34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9면에 이어서)

1. 판단 중지(epoch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과학의 자연주의적 태도는, 엄밀하게 보자면 지극히 못한 채 객관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근대 과학의 논증 방법이 완전히 필증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드러나온다. 이 객관성은 현대 학문을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로 몰고가는 학문의 총체적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후설은 말한다. 이것은 또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인식 이론을 잘못 상정하면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설의 인식 이론에 있어 이전의 철학자들이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식이 대상에 대한 지향성이라고 하는 대상 스스로가 가지는 인식의 지평과 함께 '인어 사별'(Mehermeinung)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는 이 책상을 지적할 경우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책상의 앞면 뿐이요, 뒷면을 비롯한 여타의 면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없고, 그 스스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대상인 책상은 나에게 전체로 의의가 있다. 이런 사실은 내가 책상을 지적할 때 책상의 앞면 이상의 것(지평)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지적 대상은 그 스스로 지적된 것 이외의 지평을 가지고 있으며(외적 지평), 지각의 주체 역시 지향성이라고 하는 전자 주어질 시간적 의미와 지각된 것 자체 이외의 공간에 관한 공간적 의미라는 시, 공간적 지평을 함께 가지고 있다(내적 지평). 바로 이러한 지향적 인식 구성은 외적 지향성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지향성에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실제적 사물들에 대해서는 감각적 지각을 통하여 그것들을 인식하지만, "반면에 관념적 본질들은 본질 직관의 형상적 방법"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은 올바른 인식의 한 방법이며, 또 그러한 인식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판단 중지에도 이어지며, 우리가 감각 지각을 통하여서는 올바른 인식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그는 의미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지각이란 감각 지각이 아닌 '직관(intuitio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실증주의적 과학의 자연주의적 성격, 즉 본능적으로 상정한 객관성은 인간의 의식과 세계를 전혀 통일 될 수 없는 본질로 치닫게 한 것을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설의 작업은 그 본질의 틈을 고찰할 수 있는 엄밀한 학문으로서 철학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위기 극복은 이러한 본질의 틈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식이 자기 본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으며, 그의 인식의 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본질이라는 위장된 모습을 벗겨내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바로 이러한 역할

은 그가 말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상학에 있어 이 환원의 방법은 '판단 중지(epoche)라고 불리는, '괄호를 친다'는 의미의 로마 시대의 종교, 윤리 철학자의 회의론자들이 의하여 철학적 개념에서 도입되었다. 현상학적 철학은 현상학적 판단 중지(에 의해 철저하게, 상식적인 기준 이론과 철학의 타당성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그 근본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음미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것은 객관의 의미와 타당에 관한 지향적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후설 역시 칸트와 마찬가지로 아 프리오리한 인식을 절대적인 인식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아 프리오리한 인식에도 나아가는 선험적 환원이 바로 그 방법인 셈이다.

그는 이처럼 모든 학문의 출발점을 '사상 자체'(事實 自體), 즉 현상(phenomenon)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상이란 원천적으로 어떠한 구성적이고 가공적인 설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의식에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물 자체는 우리가 아무런 반성도 취하지 않는 경험적 자연적 태도 안에서 결코 스스로를 보여주기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박한 일상적 태도건 자연 과학적 태도건간에, 자연적 태도와 선험적 환원의 절차를 통하여 자연적 입장을 배제하고, 형상적 태도를 배제하여야만 자연적 입장의 사실 과학들이 배제되어 객체 본질 파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초월적 실체는 스스로 내게 '주어지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밀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반면에 사상 자체는 그러한 밀어진 초월자가 아니라 절대적, 명증적 내재로 그저 주어지는 그대로 기술(description)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철학에 있어, '기술'은 어떤 학문에서보다도 엄밀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며, 그것은 최초의 원천적인 인식이기에 여타의 어떠한 인식적업보다도 선행한다. 모든 인식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상학의 탐구 주체는 바로 이러한 순수 현상이 된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분명해진 셈이다. 즉 현상에 대한 직관과 현상학적 환원만이 '그 어떤 형태로든 배제' 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2. 환원의 원리-데카르트적 회의와 지향성의 문제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문이 근본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초월적인 대상들에 대한 인식론적인 환원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식 대상에 대한 '괄호 친다'이다. 이 괄호친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총체적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그 중점이 있다. '때때로 참여한 모든 초월성에 배제의 부호나 무관심의 부호, 또는 인식론적 제로의 부호가 붙여져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모든 초월적인 것의 실재는 내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여기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금 여기는 초월적인 것의 실재에 관

하여 판단할 장소가 아니며, 그것은 전혀 문제도 아니라고 말하는 부호가 붙여져야 한다."

후설에게 있어 현상학적 판단 중지는 세계를,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주어질 채로 단번에 괄호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그들 밖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데카르트(상학)에서 행한 것처럼 cogito에 이르러는, 이미 생각하는 자아의 의식을 설정한, 즉 목적이 정해진 판단 중지마저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설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판단 중지(가) 원본적인 데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연주의적 태도인 객관주의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방식으로 논증했음을 비판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세계의 이성적 해명이 그 위에 세워질 수 없다. 또 세워져야만 하는 공리의 구실을 한다. 그러나 후설의 의견에 따르면, 이 공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공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로부터는 단지 일정한 체험이 있다는 것만이 이끌어질 수 있을 뿐이다. 오직 후설의 형상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의 절차를 통하여 자연적 입장을 배제하고, 형상적 태도를 배제하여야만 자연적 입장의 사실 과학들이 배제되어 객체 본질 파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후설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판단 중지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현상학적 환원이 대상 인식에 관한 회의의 측면에 있어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같은 논신 상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회의를 통하여 회의하는 주체인 cogito에 이르게 되는 것을 후설은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 방법적 회의를 통하여 상정한 사유의 주체는 이미 사유되는 대상 세계를 주제로부터 독립시켜, 그것이 바로 인식 주체로부터 의미 지워진다는 것을 그 논의의 밖에 두고 있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판단 중지의 난점은 그가 주관과 대상을 대립적인 것으로 상정한 데서 기인하며, 결국은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귀결된다. 후설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오직 cogito, 즉 생각하는 자아만을 명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더구나 그는 대상에 관한 지향적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 실체와 연장 실체의 이원론을 피할 수 없었다. 앞에서 논의되었지만, 대상에 관한 '지향성'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점이다.

데카르트적 인식의 주관과 대상을 이원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반해, 후설에게 있어서 인식 주관의 명증성은 대상의 명증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주관과 대상을 인식 체계의 양 극단(極端)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에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것은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의 주체, 즉 현상이 있게끔 한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판단은 일단 유보되지만, 현상이 의식에 들어오는 작용은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판단이 유보된 채이긴 하지만, 대상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현상이 우리 의식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리 의식이 또한 대상의 현상을 파악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의식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후설은 이러한 학문 탐구의 대상을 인식 체계의 양 극단(極端)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에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것은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의 주체, 즉 현상이 있게끔 한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판단은 일단 유보되지만, 현상이 의식에 들어오는 작용은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판단이 유보된 채이긴 하지만, 대상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현상이 우리 의식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리 의식이 또한 대상의 현상을 파악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의식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후설은 이러한 학문 탐구의 대상을 인식 체계의 양 극단(極端)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식에 일반적으로 주어진다 것은 현상을 의미한다. 이 현상의 주체, 즉 현상이 있게끔 한 대상이 존재하는가의 판단은 일단 유보되지만, 현상이 의식에 들어오는 작용은 존재한다. 이것은 또한, 판단이 유보된 채이긴 하지만, 대상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현상이 우리 의식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리 의식이 또한 대상의 현상을 파악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의식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설은 이러한 인식 이론의 구성을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의 판단 중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시작한다. 데카르트적 cogito)의 인식 이론의 규범적이며 또한 세계의 명증성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을 후설은 비판하면서, 의식의 행위인 cogitatio를 세계 인식의 본질을 구명하는 데에 있어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후설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의식 행위인 cogitatio 이외에는 없으며, 이 의식 행위를 인식 비판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전제 없는 철학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cogitatio에 의해서 인식의 본질을 구명하려는 후설의 의도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분법을 지양(止揚)하고 이 주관과 객관의 상관관계에서 새로운 제 삼의 길을 개척해 가려는 것이다. 즉 cogitatio를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대상의 실존에 관한 명증성의 문제와 인식의 주관과 대상의 맞 아떨어짐의 문제는 전자를 괄호속에 묶어 넣음으로써, 후자를 동일한 범주 안에 넣 어버림으로써 해소되는 것이다.

IV. 새로이 점조된 생활세계

후설에게 있어서 이제 탐구 대상의 새로운 이해가 떠오른다. 그가 근대 이후의 제 개별과학의 자연주의적 경향을 비판하는 이유를 우리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그가 자연주의적 경향의 세계 분석을 거부하게 된 결과로, 자연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분석의 대상들은 더 이상 철학의 탐구 영역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상학자에게 주어지는 엄밀한 학의 대상은 무엇인가? 대상의 문제가 정화되어 있는 것일까? 후설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의식 행위인 cogitatio 이외에는 없으며, 이 의식 행위를 인식 비판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전제 없는 철학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cogitatio에 의해서 인식의 본질을 구명하려는 후설의 의도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분법을 지양(止揚)하고 이 주관과 객관의 상관관계에서 새로운 제 삼의 길을 개척해 가려는 것이다. 즉 cogitatio를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대상의 실존에 관한 명증성의 문제와 인식의 주관과 대상의 맞 아떨어짐의 문제는 전자를 괄호속에 묶어 넣음으로써, 후자를 동일한 범주 안에 넣 어버림으로써 해소되는 것이다.

어떤가? 대상의 문제가 정화되어 있는 것일까? 후설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의식 행위인 cogitatio 이외에는 없으며, 이 의식 행위를 인식 비판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전제 없는 철학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cogitatio에 의해서 인식의 본질을 구명하려는 후설의 의도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분법을 지양(止揚)하고 이 주관과 객관의 상관관계에서 새로운 제 삼의 길을 개척해 가려는 것이다. 즉 cogitatio를 출발점으로 삼게 되면, 대상의 실존에 관한 명증성의 문제와 인식의 주관과 대상의 맞 아떨어짐의 문제는 전자를 괄호속에 묶어 넣음으로써, 후자를 동일한 범주 안에 넣 어버림으로써 해소되는 것이다.

반면에 후설에 있어서 엄밀한 학문 탐구의 대상 영역의 근본적인 확보를 위하여 생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기술(descrip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자연 과학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과학이라는 전제의 불빛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과학의 발전 이후에, 후설이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해석의 논증 방식은 아직도, 후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후설의 '지향성'의 인식 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와 인간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급류(急流)를 서로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후설이 했던 작업과 유사한 것을 레아만 할지는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철학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무도 자연주의적인 세계 해석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인 회의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세계를 재해석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실지로 인문 과학에 주목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의 현실적인 구조를 뒤엎어놓을 의미하며, 인문 과학의 비판과 새로운 이념들이 새로운 과학의 방법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한다. 그리고 '진리'라 믿어지고있는 여지까지의 방법론, 즉 단지 수량적인 것으로 우리 세계의 부조리의 요소와 진화의 원리마저 꺾어버려 버린다면 누구도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설의 현상학은 생활 세계를 통하여 보편화의 가능성에 대한 시야를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후설의 인식 이론이 새로운 방법론의 영역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고찰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전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칸트의 인식 구성적 측면을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보편타당으로부터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인식 구조를 상정

하고 있음을 보였다. 더구나 그는 근대 이후의 학문의 발전이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변질적 현상을 지적하고, 철학을 새로운 위상 위에 정립하여 제 개별 과학들을 총괄하여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세계를 조망하려는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음도 보였다.

그러나 반면 그는 의식을 새로운 탐구 영역으로 생각하고, 인식 주체 자체나 대상 자체의 탐구에 회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현상과 동일한 지위로 격하시켜 버렸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위 선험적 주관성이라는 인식의 주체마저 대상화시켜 의식에 의한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상과 마찬가지로 주체도 경험적인 혹은 자연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물론 그가 자연주의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환원이라는 것이 환원에 의하여 남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으로부터 환원된 것 또한 현상으로서 현상으로부터 환원해 볼 때 우리는 영원히 그 환원의 순수성에도 도달할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되고 있다.

반면 후설의 현상학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갈릴레오 이후의 근대 과학의 발전 이후에, 후설이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해석의 논증 방식은 아직도, 후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후설의 '지향성'의 인식 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와 인간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급류(急流)를 서로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후설이 했던 작업과 유사한 것을 레아만 할지는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철학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무도 자연주의적인 세계 해석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인 회의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세계를 재해석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실지로 인문 과학에 주목한다고 하는 일이 우리의 현실적인 구조를 뒤엎어놓을 의미하며, 인문 과학의 비판과 새로운 이념들이 새로운 과학의 방법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한다. 그리고 '진리'라 믿어지고있는 여지까지의 방법론, 즉 단지 수량적인 것으로 우리 세계의 부조리의 요소와 진화의 원리마저 꺾어버려 버린다면 누구도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설의 현상학은 생활 세계를 통하여 보편화의 가능성에 대한 시야를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부문 본상 수상작

강택민 체제의 정책기조와 그 변화

사회과학부문 당선소감



“중국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황보영 (사과대 정치외교)

중국은 동구권의 탈사회주의화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다. 아직도 불안정한 상황속에 있고, 많은 시정적임을 겪고 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이 더군다나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알고 싶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잠재력, 변화,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내게는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정치학연구실 지도교수님, 선배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민수형, 탁용이형, 경진이형, 시용이형, 일권이형, 네 동기 때문이, 모두가 내가 힘들 때 있어서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다. 특히 내게 많은 조언을 주시고, 내가 헤아리지 못하도록 많은 충고를 주신 민성이형,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철수, 용석, 정치학연구실 후배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서론

89년 천안문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등소평은 당시 조자양 총서기를 축출한 뒤 자신의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갈 만한 인물을 찾다가 개혁·개방의 도시 상해의 책임자 강택민을 발탁하게 되었고,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강택민-이붕-교석 3인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출범시켰다. 강택민은 현재 당총서기, 국가주석, 당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등소평에 이어 중국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78년 등소평 집권 이후부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실시되어 온 개혁·개방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기기간에 GNP 상승, 외국투자 유치, 대외 무역 총액의 증가 등에 따라 성과물들을 만들어 낸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현재와서는 중국내에서 개혁·개방정책 실시에 의한 후유증들, 구조적으로 계층분화, 권력 소외, 부패문제, 도덕 타락, 통과정책, 인위 확대와 범죄현상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수파와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견해도 특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추구할 당시 생선처럼 발전을 급진무리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혁·개방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우회하거나, 그에 대한 비판을 등소평

자신의 권위로서 묵살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엔 문제점들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등소평 사후에는 이처럼 우회하거나 묵살되었던 문제점들이 차츰 들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등소평의 사상이 가 개워지면서 등소평에 대한 비판도 현재와서 서서히 거론되고 있다.

강택민은 등장 초기부터 개혁·개방 추진과 함께 이러한 개혁·개방의 후유증들과 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난제들을 안고 있었으며, 강택민은 등소평의 후광을 뒤에 얹고 등장했지만 얼마남지 않은 등소평 사후에 있을 권력 다툼과 불안정한 정국을 대비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택민은 현재 이러한 상황 타개를 모색하기 위해서 등소평의 노선을 벗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등소평이 강조해 온 고도성장정책을 최근 안경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또 그는 개혁·개방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정신문명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등소평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가속화에 찬물을 끼얹는 형태가 되었다. 그는 초기 집권 당시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학·개방 정책의 배경, 보수화 경향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강택민체제의 초기 형성 과정과 성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 등소평이 추구하던 정책에서 벗어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 III장에서는 이러한 변화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강택민체제의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제 IV장에서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였다.

II. 강택민 체제의 등장과 기조 정책의 배경

1. 강택민 체제의 등장

강택민이 등소평에 의해 후계자로 발탁될 당시, 해외의 수많은 중국문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전 중국의 사단여객이 넘는 중국공산당 당원들도 전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등소평이 강택민을 후계자로 지목하게 된 것은 자신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만한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강택민의 정치성향은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경제적 개혁과 대외 개방에 대한 것은 등소평의 노선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강택민은 상해의 책임자로 있을 당시 상해시를 중국의 금융중심지와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발휘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추구했던 모습들을 보여 주었다.

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과별을 가질 수 없는 인물로서 등소평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때문에 등소평이 강택민을 발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택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64 천안문 사태 이후, 1989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3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제 13기 4중전회)를 통해서였다. 이 '제13기 4중전회'에서 강택민은 상해시 시위일파의 서거에서 비약적으로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지도층의 핵심인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 11월에 개최된 '제13기 5중전회'를 통해 등소평은 강택민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자 했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직을, 1990년 4월에 열린 '제7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3차회의에서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그에게 승계시킨으로써 강택민은 중국공산당 지도부내에서 최고의 입지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중임의 지도부에 등장하게 된 강택민은 국무원 총리 이붕, 교석 등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등소평은 강택민-이붕-교석을 핵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출범시켰는데, 이것은 '중국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절대 필요하다'는 등소평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11면에 계속)

제34회 동대학술상 수상작

사회과학부문 심사평

강택민체제, 이론과 현실측면 동시분석

중국 현재와 미래 조망한 우수논문

황보영근의 〈강택민체제의 정책기조와 그 변화〉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비판 형식 내용 등이 잘 구성되어 있어 논문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강택민체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이른바 개방정책을 전개하면서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정신문명건설'을 내세워 보수화를 추구, 개혁정책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대기조에 입각한 강택민의 정책방향을 이론과 현실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하여 명료하게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있어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잘 정리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원 자료를 인용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청의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부 학생으로서 대단히 잘 정리한 글에 속한다. 앞으로 정진하면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된다.

유 광 진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념사용 신선·뛰어난 문장력 등 탁월

임한철근의 〈사회과학의 '대안적'방법론을 위한 단상 - 고전적 방법론으로서의 사적유물론〉은 여러가지 탁월성을 지닌 논문이다. 우선 개념사용의 신선함과 뛰어난 문장력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자기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후좌우의 많은 서적들을 학부생의 수준을 경중 뛰어넘을 정도로 섭렵하고 잘 숙지하고 있다. 셋째는 논지 전개와 일관성과 독창성을 들 수 있다. 넷째는 내용의 높은 실득력이다. 다섯째는 논문 전권에 걸쳐 감자되는 높은 학구열이다.

물론 학술적 작업의 경험이 아직 미흡하여 여기저기 보이는 결점들도 눈에 띈다. 시간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너무 미흡한 설명과 오달자(亂脫字), 성급하게 느껴지는 단정 등이 간혹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그러나 이 결점들은 상술의 탁월한 위예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본 심사위원은 위 논문을 본상으로 추천해야 마땅하나, 두사람에게 본상을 줄 수 없는 학술상 제도의 내구(內耗)로 인하여 부득이 가차으로 명한다.

황 태 연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의 적절한 주제설정... 논지불분명

최경원근의 〈동북아정세변화와 통일접근방향〉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이 한반도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분석한 논문으로 주제의 설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통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서술함으로써 논지가 불명하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국제환경변화,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접근, 북한의 생존전략과 통일정책,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 그리고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문제의 접근 등이다. 이 각각의 주제가 하나의 논문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연구범위가 넓고 산만하다.

다만, 결론부문에서 제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향은 참신한 생각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문장의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다소 눈에 띈다. 지상에 발표할 경우 축약하여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탈방전 이후의 우리의 통일문제를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가차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고 유 환

(사과대 북한학과 교수)

이것은 그동안 경제건설위주로 중국을 이끌어온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홍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강택민이 비록 등소평에 의해 발탁되었지만, 등소평 사후에 미약해진 경제개혁보다는 보수세력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그의 권력유지가 더 수월할 것이다. 따라서 모택 동시대에는 개혁세력이 축출되고 등소평 시대에는 보수세력이 약화됐듯이 강택민 시대에는 개혁개방론자들이 강력한 상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정치·사회적 과도기에 편승하여 나타날 수 있는 반체제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월 2월말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18차 회의시 '개업법'을 통과시켜 국가의 통일·안정 또는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소위사태 발생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IV. 정책의 전망

중국을 과거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접목이라는 도박을 감행했다. 그들이 이 시장경제를 표방한 이상, 시장경제의 추구를 위해 결정적으로 국가종양이나 공산당의 영도가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이상 결국 최소한의 부작용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

은 중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다' 하며 「불확도회두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분명히 개혁개방정책을 유지해 나가게 될 것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속도와 폭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정작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개혁·개방정책의 시행은 불변할 것이다.

(12면 계속)

(10면에 이어서)

하지만 강택민체제의 출범당시, 1989년 천안문사태 결과로 인해 원로집단의 정치 참여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었 고, 이들 원로집단들의 결정과 강력한 지원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강택민 체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원로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된 반면, 강택민체제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2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제14차 전인대 1차회의' (이하 전대회)와 1993년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던 '제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등소평 이후의 후계체제로서 강택민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적인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제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강택민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에 당선됨으로써 당·정·군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봉은 국무원 총리에 취임되고, 고석은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4전대회'와 '제8기 전인대 1차회의'를 통해서 중앙지도계층에 강택민체제를 뒷받침할 개혁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14전대회'에서는 원로집단의 정치참여의 중요한 채널로 작용하는 중앙고문위원회를 철폐함으로써 강택민체제하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원로들의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택민 체제는 출범 당시보다 독립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고, 좀더 확고한 위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강택민체제가 강화된 것은 강택민을 법률적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중앙의 분업적 집권지도체제와 등소평 사후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감으로써 중앙지도체제상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2. 개혁·개방 정책과 그 배경

강택민체제는 현재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개혁·개방정책은 강택민체제가 출범한 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등소평이 집권 초기부터 추구하고 실시해 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강택민체제가 등장 당시부터 등소평의 연장선상으로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1992년 '14전대회'와 '제8기 전인대 1차회의'를 통해 세대교체된 지금의 지도부가 이봉을 세우고자 내부에서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고, 특히 지도부의 핵심인물인 강택민은 등소평에 의해 자신의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줄 인물로 판단되어 후계자로 선출되었다 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봉도 보수적 인물이라는 하지만 그도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는 반대하지 않았으며, 개혁·개방의 방법,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는 권력 엘리트사이에서 이미 의견일치를 본 상황이다. 또한 강택민이 1989년 집권한 후에도 개혁·개방 정책시행에 있어서는 아직 등소평의 입장이 적용하고 있었다. 1992년 초 등소평이 직책, 주재, 상해 등 중국 남부지역을 시찰(1.18~2.21) 하면서 발표한 '남순구화'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을 심화·확대할 것을 역설했는데, 등소평의 '남순구화'는 '14전대회'에서 당의 공식노선으로 채택되었으며, '제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국사로 헌법에게까지 미 시되었다. 두번째,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적 성장에 의해 삶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나아진 인민들이 계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 인민들의 가치관과 가치기준이 변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권력이 가치관이었으나, 현재는 돈에 대한 적극성을 정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이 거대한 중국인민들의 변화된 성향을 무시하고, 원체제로의 복귀를 꾀한다면 인민들의 불만, 평배와 함께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번째, 중국은 소련의 몰락으로 나타난 양극체제의 붕괴는 국제질서에서의 다극화 추세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다극화 추세에서의 선진국 간의 이들, 국가들의 경제협력화 노력, 보호무역주의 채택 및 과학과 기술경쟁으로, 협력은 국가간의 무역불균형 시정, 환경보호 및 무역통제정책 등에서의 협력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경우 중국은 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고립을 면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자생력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일원으로서 참여해야지만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바랄 수 있다.

네번째, 개혁·개방 정책을 지금에 와서 시행을 중단해 버린다면 국내적으로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해외로 이어지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만약에 개혁 과정이 당장 멈추버린다면, 사회 경제 생활의 수많은 중요한 모순을 해결 수입의 부족, 국영기업의 엄청난 손실, 자금 시장의 단일화와 경직화, 그리고 농민의 생산 적극성 감퇴 등을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은 거의 국가의 관건적 문제들로서 개혁을 계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개혁이 현재 상황에서 뒤로 후퇴한다면, 그 결과는 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보수화의 경향과 그 배경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보수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과 개방화가 경제에 있어서는 활발하고 급속하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정치에 있어서는 개혁이 초보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미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본질적인 정치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히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정책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있어서의 개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보수화되어 가는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개혁·개방 초기단계부터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그것과 모순되는 '4항 견지'원칙을 채택하였다. '4항견지'원칙이란 통치원칙으로 ①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②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견지 ③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의 견지 ④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의 견지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이념의 대륙적인 수장이나 포기로 공산당 통치나 공산혁명의 유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4항견지'원칙은 정치에 있어서의 개혁정책을 크게 제한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등소평도 정치에 있어서의 개혁과, 경제에 있어서의 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소평은 중국과 같이 오랜 기간 통제된 사회 속에서 지내온 인민들에게 경제발전을 앞지르는 체제개방이 가져다 줄 사회적 혼란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광대한 국토와 막대한 인구 그것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 경우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속도는 상호연관성 속에서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체제 개혁에 관한 방침도 이러한 기본 인식의 바탕위에서 고려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등소평의 정치체제개혁은 다만 경제개혁을 보장하기 위한 "공구성"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정치적으로 더욱 더 보수화되도록 만든 사건이 1989년의 천안문사태의 발생이다.

개혁실시 후 10년이 경과된 1988년부터는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 소득의 불균형, 관리들의 부정부패 및 농업생산의 정체 등 갖가지 개혁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표면화 했으며, 결국 이같은 경제적 모순점들은 1989년 6·4천안문사태의 가장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정부는 천안문사태를 거치면서 국내 불만 증대, 사회주의 체제의 대변혁, 마·일·서구 등의 경제체제 조차 때문에 따른 국내 불안과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건지와 공산당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국안정에 최대목표를 두고 개혁성과의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혁·개방정책과 '4항원칙'중에서 후자가 보다 강조되는 분위기로 기울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성장으로 1988년 가을부터 실시해온 강력한 경제긴축·조정정책인 '차리정돈'이 지속되었고, 정치·사회적으로는 '회평변' (평화적으로 변혁을 전개한다는 뜻, 서방측이 사회주의국가를 내부로부터 왜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공식적 성격의 전략을 말한다)을 전개하는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구권의 탈사회주의화 변혁과 소련방의 붕괴는 중국 지도부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소련의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정치·경제의 개방이 붕괴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소련방의 붕괴와, 붕괴 이후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중국이 정치단결과 공산당 일당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다.

결국 1989년 6·4 천안문사태와 그 이후에 급진전된 동구의 탈사회주의적 변혁과 소련방의 붕괴로 중국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인식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사회가 전면적으로 위축되어 경제적 합리주의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정치우선주의로 급진화되었다. 강택민체제가 초기 출범할 당시부터 담뻛했던 내외적 정책환경도 강택민체제의 보수성향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14전대회'와 '제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확립된 '중국개혁의 기본 방향은 등소평의 '정자경우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경제영역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을 통한 더욱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구하고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기구개혁 및 행정개혁에 엄격히 한정시키

고, 또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당·정 분리나 권력분산 방향에서 탈피, 당·정 합일과 권력집중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질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당의 일원화'기능을 더욱 강화됨으로써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III. 강택민체제의 정책변화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후유증들을 남기게 되었다.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지역 간의 불균형, 유민화대, 소득분배의 불균형, 범죄의 증가 등이 개혁·개방의 후유증이다. 이러한 후유증들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개혁·개방의 후유증 치료가 없는 지속적인 개혁·개방의 가속화 추구는 오히려 후유증들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으며, 중국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강택민은 권위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지도자 모택동, 등소평에 비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견제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후유증들은 더욱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강택민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권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되고 있는 후유증들을 반드시 치료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중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품은 민중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견제세력의 비판도 강하게 되며, 앞으로 다칠 등소평 사후에는 권력유지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택민은 이러한 후유증치료를 함께 개혁개방정책을 함께 시행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며, 자신의 권력유지까지 다 줄 사회적 혼란의 심각성에 대해서 간파한다면 강택민은 성장과 개혁, 그리고 정국의 안정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택민은 등소평이 추구해 오던 기존의 개혁, 개방정책의 틀에서 벗어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강택민은 등소평이 주장한 고도성장 정책에 안전위주로 정책을 변화시켰으며, 개혁개방의 후유증을 치료하고자 '정신문명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1. 안정위주의 경제성장정책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등소평은 무엇보다도 생산력의 발전, 경제의 고도성장을 우선시 하였다. 따라서 개혁·개방에 의해 나타난 후유증들을 우회하면서까지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추진하였다. 천안문사태와 소련방의 붕괴 이후 개혁·개방정책이 타격을 받고, 보수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은 1992년 '남순구화'를 통해 다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역설하였다. 등소평은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개혁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소평은 그의 권위로서 개혁개방의 후유증들을 교묘하게 통제 삼지 않고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등소평의 '남순구화' 이후 중국이 급진 성장정책을 채택함으로써 1989년 이래 안정세를 보여왔던 소비자 물가가 1993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상대적 경제발달감에 빠져있는 지식인과 도시지역 노동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제8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동안 연평균 12%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신장되었으나, 고도성장정책의 부작용으로 연평균 11.4%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의 절대다수를 차지해왔던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역간계층간 경제격차의 확대는 중국 전체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내륙지역 주민의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자극하고, 농촌지역에서 집단 시위와 소요 사태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중국지도부내에서도 이러한 등소평의 정책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용기 부총리 등 신보수주의 지도부는 등소평이 '남순구화'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영역에 '미친듯한 사고 방식'을 주입시켰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것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가속화추구가 농업지역과 정부 주요 프로젝트 조달자금 부족을 초래했고, 과잉 투자와 부동산투기, 무분별한 은행대부 등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상태에서 등소평이 주장한 대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한다면, 결국에는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교묘하게 피해왔던 민감한 문제들에 부착한다는 것이다. 그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국영 기업의 생산인 관계, 개혁, 은행의 독립적 지위의 확립, 도시의 복지 보장 체계의 조정, 국가 공무원 및 국영 기업체 직원의 노동자유화 제도의 제정과 실시 등이다. 이 문제들은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다.

과거의 개혁은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 일종의 보수 공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은 건드려 이후에 기존의 규범들과 격렬한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강택민체제는 급진적 개혁개방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소평의 급진성장정책 대신 안정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개혁개방 정책은 계속적으로 수행되되, 개혁개방의 가속화 추구가 아니라 속도와 폭을 완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연해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와 내륙지역 개발 지원확대 등 안정위주의 개혁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작년 9월에 열린 '제14기 5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은 향후 중앙정부의 거시정책 가능 강화와 시장화 촉진을 양대 경제정책 목표로 추진하되 거시정책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안정기조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올해 3월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8기 전인대 4차회의'에서는 작년의 '제14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제9차 5개년 경제계획'(1996년~2000년)과 2010년까지 연평균 8%(차 5개년 경제계획 시기의 연평균 성장률은 12%)의 경제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총생산액을 1980년 대비 4배(약 900달러) 증대시키며 2010년에는 이를 다시 2배 증대(약 1천800달러) 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달성함으로써 2010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21세기 중반 경제선진국 진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개혁과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정책을 단행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거시 조정의 주요 임무로 함으로써 9차 5개년계획 기간중 평균적 경제성장률을 앞서 말한바와 같이 8%를 하고 최저인하수치를 30%로 해서 이를 때를 초과하지 하키시키고, 경제성장률보다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가가 경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상태에 처해 있어서 중국의 재정적자를 누락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1000개의 주요 대기업만을 국가가 관장하고 나머지 경영부실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은 점차 민간과 외국기업에 이양할 계획인 것이다. 국유기업 개혁진도에 따라 기존 국유기업 총자산들의 실업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것인데, 중국은 양로, 실업, 의료, 주거 보충등에 개혁 후 사회보장 제도 강화를 통해 시장경제 요소 도입에 따른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내륙 농촌지역과 동부 도시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낙후된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곳의 18개 성과 자치구의 개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유한 동부지역에 대해 빈곤한 서부지역과 경제협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구획도 마련했다. 그와 함께 중국 당국은 최근 농업노동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잉여 노동인구 1억 4천만명을 점차 동부 도시지역으로 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주도했다.

2. 정신문명건설과 보수화 경향

현재 강택민은 개혁·개방이 물고른 부정부패 척결과 각 분야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주의 사상교육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강택민은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이른바 '정신문명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개혁개방에 따라 국가의 문명건설이 경제건설 성과보다 낙후된 국면을 타개하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강택민은 '정신문명건설'을 당령·군에 수없이 반복해 강조하면서 모택 동시대에는 '혁명', 등소평시대에는 '개혁·개방', 강택민시대에는 '정신문명건설'이라는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강택민이 주장한 이 '정신문명건설'을 위한 결의안은 올해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북경에서 개최된 '제14기 6중전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이번 열린 '제14기 6중전회'의 성명서에는 '지난 78년 12월의 확인, 도시의 복지 보장 체계의 조정, 국가 공무원 및 국영 기업체 직원의 노동자유화 제도의 제정'과 실시 등이다. 이 문제들은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다.

제34회 동대학살상 수상작

(11면에 이어서)
 그런데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개혁은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질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기구나 행정개혁 차원을 근본적으로 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중국정부에서 개혁의 목표가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력을 증강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민의 체제에 대한 동의를 지속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진정한 정치체제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인민의 자유와 민주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개혁을 실시하면, 공산당의 기득이익과 권력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현 강택민체제의 정치개혁은 앞서 말해듯이 단순히 경제의 개혁·개방정책을 위한 도구적인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개혁·개방정책이 너무 경제적인 일면도로만 치우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개혁은 매우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개혁·개방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일면도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경제적인 성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이 표방하는 '정경경우의 구호에서 나

난 사회주의 실현과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추구가능성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수용이 가능할 지 모른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무난하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경제가 자유와 평등, 동기교환적 원칙에 기초한 시장전환이 급진전되어 갈 경우, 이러한 전면적인 개혁에 의해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변화가 최소한으로 절제된 정치체제간의 탈절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정치와 경제체제간의 심각한 탈절현상은 향후 중국정치적 가장 중요한 긴장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경제의 개혁과 정치체제간의 모순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문제점이다.
 이것은 현 강택민체제에서 경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정신문명건설'을 내세워 개혁·개방을 통해 나타난 부정부패 척결과 각 분야의 부작용의 제거를 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신문명건설'을 내세운 것이 정치적 색채를 도리어 보수화 시켜버림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의 개혁과 병행하는 정치체제개혁의 전망은 불투명해 만들었다. 또한 개혁·개방의 추구에 있어서도 정국의 안정이라는 목표이래

현재의 경제정책을 고도성장보다는 안정 위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확대를 원한다면 강택민체제가 추구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안정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원될 것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처하여 안정정책의 강화가 오히려 중국이 목표로 하는 정치·사회 안정을 위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위주의 경제성장정책과 '정신문명건설'을 통해 후유증치료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안정적 상황이 도래하면 개혁·개방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의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인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중국인민들의 자유와 민주권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것이 정치체제개혁과 정치발전의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덧붙이자면 민주화가 발전되는 경우 정치체제개혁은 필수적이며, 정치체제개혁은 또 다른 민주화를 요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변수가 작용하게 된다.

첫째, 경제발전과 외국과의 교류에서 크게 영향받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성장 여부, 둘째, 정치체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집단·그룹의 성격과 역량이 그것이다.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성장을 한다면, 천안문 사태 이후 억압받은 지식인과 학생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 등용된 사후에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들은 열정적인 안목의 재정의와 강제집행 책임자 처벌을 전연으로 내걸고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공산당 지도층이 취할 수 있는 대응에는 전적인 수용, 선택적인 수용, 탄압이 있는데, 중국정부가 선택적인 수용을 택할 가 능성이 가장 높다. 전적인 수용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은 곧바로 공산당 일 당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요구를 선택적 이나 신속하게 수용하여 부분적이거나 단·정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공산당은 명목만을 유지한 채 사실상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공산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중국내외의 일반적 견해이다.
V. 결론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접목한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아직 어디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계속적인

하나의 실험과정이다.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시장경제를 중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으로서 끝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의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중국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재창조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성격이 각종 정치·경제·사회 등의 변화와 상응하는 지도부의 조치로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검토되는 형태로 변화되어 오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등소평 체제도 그대 왔고, 현 강택민체제도 실험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수정작업과 함께 이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등소평의 연장선상으로 출발한 강택민체제는 초 기 등장할 당시보다 현재에는 성격과 정책면에서 등소평 노선과 다른 변화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택민체제가 추구하는 정책들이 현재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 모색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이라 해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도 실험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사회주의 실험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중국의 미래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수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

년 개최될 '15년대회'에서의 권력재편, 홍콩의 반환, 대만과의 관계 등 이러한 변수에 따라 중국의 행로가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등소평의 건강문제가 거론된 이후 등소평 사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등소평 사후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등소평이 중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서 존재해 왔고, 또한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동시에, 주도자였던 그가 사라지면 앞으로 지금까지 잠재해 왔던 변수들이 새롭게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향후 중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이유는 중국같이 잠재력이 큰 국가의 앞날의 진로의 방향에 따라 각국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들로 인해 중국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앞서 밝혔듯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회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한 시장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등성있게 '현행정치체제를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되고, 또 시장경제에 걸맞는 정치체제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자연과학부문 본상 수상작

생태적 농업의 시대의미

I. 들어가서 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유지만 해서는 그 생존이 불확실한 시대를 맞아 변화를 안팎으로 갈구하는 시점을 맞이했다. 농업에 있어서 변화의 요구는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 한국의 발전과정에서의 파도만 수월로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너무나 약해진 오늘, 농업위기는 곧 농업개혁과 결부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주지의 사실이며, 영세한 경작규모에 영농 승계자의 부재는 비교우위에 있어 일각의 농업무용론을 낳았다. 급박한 현실이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 난무하는 대책에 대한 공박도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 한국경제의 기반이 되었던 농촌의 몰락은 당연하게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지역을 근거한 조항형태의 영농법인과 상충, 각종 기계화농의 확대에 정부지원이 있는데, 2003년 개방의 시점까지 이들 형태의 영농경영의 확대는 그다지 큰 걸림이 없다. 이 시점에 이르러 기업자본의 도입이 허용될 것은 예상되는 바이다. 결국 부분적인 다원화, 고품질화의 방향과 함께 대부분의 대규모적인 기계화 농업의 형태를 취하는 현대농업의 모습을 목표로 한 것 같다. 그런 변화의 요구는 이것으로 충분한다.
 본 논문은 이점에 있어서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주목한다. 생태적농업이 대두된 인식의 기반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경제성 계기의 시대를 맞아 지구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생태적농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살펴 보겠다.

여기서는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할 것이다. 이들의 목적과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적 농업의 현황과 각국의 정책을 보겠다. 이는 생태적 농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덧붙여 유기농산물로 생산, 즉 축산물에 이르는 생산과정이라든가 농업생산의 본질은 순환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의 양자적 기반적 차이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우리는, 생태적 농업의 요청을 통해 허용된 구조개선과 관련된 기반적 사업의 틀 속에 우리만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적 시도에 기반할 것이며, 농업구조조정과 관계된 제도상의 올바른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교우위론이 농업의 특수성과 근원성에 있어 수월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소농구조의 영세성만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대규모 기계화를 추진해 하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생태적 농업의 대두

생태적 환경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대두된 것은 산업화 이후의 일이다. 환경문제의 악화라는 기초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여러 각도의 반성들이 확대되고 있다. 농업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

이다. 즉, 자연을 인공으로 관리하기 이전에도 고도의 농업이 있었던 것이다. 자연의 일부에 사람이 인위성을 가하여 일해 서 생산성을 높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각되니, 그 본질은 자연이 태양에너지와 한정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업이다. 자연과 생명, 그리고 농업, 농업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잃은채,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를 꿈꿔왔다. 그러나 역시 농업생산에는 공업생산의 산업화와 엄연히 다른점이 있었던 것이다. 생태적 농업은 이상에 대하여 나름의 과정을 통해 이를 반성하는데서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학의 거장 슈펜터의 지속적 제자이며, 농업 내에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도입한 일본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이며 농학자이기도 했던 토모바타(東郷精一)씨의 실망은 이를 뒷받침한다. 근대농업에 대한 실망은 ①'협회의 경제학'이 너무 의존했던 것으로 그의 분석 방식인 슈펜터의 경제학은 생명 및 생태계라는 분야를 간과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업본성을 위한 협회의 경제학이었다. 그렇지만 농업은 생명의 순환이며 영원한 재생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특성은 현대의 경제학에서는 포착할 수 없다. 분석수단이 미숙할 때 그 결과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②엔트로피 관점의 결여다. 공업제품의 대표적인 자동차, 농산물의 대표적인 쌀을 예로 들어보면, 자동차는 제조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화석에너지지를 사용한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사용한다. 석유등의 화석연료는 한번 사용하면 엔트로피가 증대(가) 된다. 엔트로피부터 본래의 화석연료로 되돌아 갈수는 없다. 한편 쌀생산은 탈곡 후에 버려지는 현물과 각각의 정제를 보겠다. 이는 생태적 농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덧붙여 유기농산물로 생산, 즉 축산물에 이르는 생산과정이라든가 농업생산의 본질은 순환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의 양자적 기반적 차이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우리는, 생태적 농업의 요청을 통해 허용된 구조개선과 관련된 기반적 사업의 틀 속에 우리만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적 시도에 기반할 것이며, 농업구조조정과 관계된 제도상의 올바른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교우위론이 농업의 특수성과 근원성에 있어 수월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소농구조의 영세성만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대규모 기계화를 추진해 하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할 것이다. 이들의 목적과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적 농업의 현황과 각국의 정책을 보겠다. 이는 생태적 농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될 것이다. 덧붙여 유기농산물로 생산, 즉 축산물에 이르는 생산과정이라든가 농업생산의 본질은 순환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의 양자적 기반적 차이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우리는, 생태적 농업의 요청을 통해 허용된 구조개선과 관련된 기반적 사업의 틀 속에 우리만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적 시도에 기반할 것이며, 농업구조조정과 관계된 제도상의 올바른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교우위론이 농업의 특수성과 근원성에 있어 수월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소농구조의 영세성만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대규모 기계화를 추진해 하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업에서 성립한 '혁신'이란 개념은 자연의 섭리를 재검토 하는 농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 것이다.

이러하기에 산업화 시대의 근대농업을 반성하는 시각은 단순한 환경보전이나 건강상의 이유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것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생태적 농업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선진국의 현황은 어떤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다. 그럼 이러한 맥락을 포함한 농업- 유기농업, 자연농업, 생물농업, 생태적농업, 환경농업 등을 묶어 생태적 농업(Ecological Agriculture)이라 지칭하겠다.

III. 생태적 농업의 내용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는 '농약을 쓰지 않고, 퇴비등으로 깨끗하게 재배한, 혹은 그래서 좀 비싼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혹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토양·수질 오염을 방지하여 생태계보존 등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이며, 홍수조절, 수자원 절약, 토양유실 방지, 대기정화 등의 간접적인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으로 정리된다.
 생태적 농업의 지칭하는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그 의미정답이 미흡한 듯하다. 생태적 농업의 뼈대는 '에너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순환농업'으로, 농업생태계의 올바른 순환과 건강할 모습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자연이 그 힘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것이 골자다. 때로는 임정자가 확인한 '유기농'과 '자연농'을 중심으로, 비판과 지지의 대상농업이 혼용되고 있음에 주의해서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1. 유기농(有機農)
 많은 생태적 농업의 구체적인 대표격이라 할 만하다. 근대농업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은 눈에 유기적으로 투영되었고, 그것이 논, 지력을 유지하고 다음 해의 수확을 가능하게 한다. 공업이 비가역적인 생산, 즉 축산물에 이르는 생산과정이라든가 농업생산의 본질은 순환인 것이다.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의 양자적 기반적 차이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우리는, 생태적 농업의 요청을 통해 허용된 구조개선과 관련된 기반적 사업의 틀 속에 우리만의 의미와 가능성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적 시도에 기반할 것이며, 농업구조조정과 관계된 제도상의 올바른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교우위론이 농업의 특수성과 근원성에 있어 수월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소농구조의 영세성만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대규모 기계화를 추진해 하는 시대착오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속도를 성공적 생산의 중심으로 간주한다. 자연의 식물·동물·환경 생산량의 측면에서, 유기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모든 국면을 최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농약, 해충제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외부비용을 급감시킨다. 대신에 강력한 자연순환력이 농업 생산량과 내병성을 증대해 준다. 유기농업은 각기의 지역조건내에서, 인공발은 보편적인 원리다. 국제유기농업협회는 '지역적·문화적·독자적인 발전시도를 지원한다'고 유기농업을 소개한다.
 다시말해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현대농업에 대한 비판으로 인위적인 외부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시스템을 생태계에 조화시켜 경제성을 높여준다. 원거 퇴비나 유기물을 주된 비료원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력을 높이고 건전한 작물을 재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지향하는 농업인 것이다.
 그 반면으로는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 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는 그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도 생태적 농업은 목표하는 것이 유기농업이다. 그러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고, 농장 내부와 그 주변의 자연 환경에 과도한 생태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이들 자연 환경을 유지 배양 하면서 농업 생산을 하며, 농작업 종사자와 그 가족 및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농업 생산을 계속하고, 영양가가 높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생산하며, 농작업 종사자에 대해 적절한 노동 보수와 유익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환경 파괴와 자생 불능의 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지역의 유기 배양' 및 '화학농업의 폐해를 최소화'라는 줄이는 메커니즘을 농업기술 가운데 의도적·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점으로, 다분히 생태적이며 인간적이라는 현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농작업이라는 노동에 대하여서도 독특한 의미부여를 하는 유기농의 특징이라 하겠다. 어쨌든 유기농은 기존의 과학적 분석의 틀을 활용함으로써 현대농업이 에너지 생산성에 있어서 파산상태에 있는 것을 주장하여 소규모농업의 경제적 위치를 높여주는데, 지속적인 순환적인 농업활동을 추구하여 지속가능 농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현대 농업의 특징을 화학화, 기계화, 혹은 그것을 지원하는 대규모화로 파악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티 테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살펴볼 자연농업은 안티 테저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껴갈 기대한다.

2. 자연농(自然農)
 자연농업은 유기농업과 비교 했을 때 약자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면이 현하다. 앞서 살펴본 본질적인 문제의식- 토모바타(東郷精一)의 질량과 회의같은-에 더 몰입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과의 괴리를 부정하는 경향이 다분히 강하다. 유기농업이 산업화 이후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연관된 대중의 보편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한 대안을 거론하고 그 모습을 들어 낸다고 할 때, 자연농업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산업화가 막 진행되려는 시점에서부터 일종의 '선각자적 각성'에 기반하여, 그 실천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허나 실제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 이후의 대중적인 관심사가 근대농업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농업이 결코 현대의 농업을, 특실한 단순자연 회귀적인 농업은 아니라 보여진다. 그것은 때때로 현대농업을 배우고 익힌 농학인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근원적인 물음을 토대로 기존의 사고를 반전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변경적으로 본다면, 참다운 '밭'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합'의 탄생을 가능케 할 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농업은 근대이후 산업화 시대의 우리 삶의 체를 반성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반성은 이미 진행된 현실과는 괴리된 반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연유가 종교적인 면이 강하다. 실제로 자연농업을 주장하는 '세계구세교'활동도 활발하다. 우리는 유기농업, 자연농업, 생물농업, 순환농업, 생태적 농업 등 여러 가지 이름의 농업을 생태적 농업으로 묶어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있어서는 이들의 세(勢)에 따라 널리 알려진 유기농업을 기준으로 모두 '유기농'으로 지칭하거나 환경적 차이를 고려해서 말할때는 그냥 '환경농업'으로 통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농에서 유사하여 대표적 실천자인 富岡精高와 세

자연과학부문 당선소감

“묵묵히 생명 가꾸는 농부 마음 배웠으면”

김 보 현

(생자대 식자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접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나름의 기준에 의거하며 결정된다.
 시대의 큰 변화에 따라 그 기준도 변하게 되는데, 여가의 생태적 농업은 이러한 변화의 축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듯 싶다. 대규모의 기계화와 화학비료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는 1세대 녹색혁명과 연계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환경과 생명의 생태적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대적인 관심은 이를 중심부로 부각시키고 있는 중이다. 여기 작은 논문은 이점에 있어서의 짧은 생각을 옮긴 것이다. 부족하나마 작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화중, 영철, 장수 등 동기와 형님, 누님, 아우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새해에는 대자연처럼 결코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도록 묵묵히 생명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을 배웠으면 한다.



계구세교 교주인 岡田茂吉의 자연농업은 용어는 같으나 성향은 다소 엇갈린다. 구세교의 자연농업은 교조의 무비로 재배라는 용어에서 시작되었으나, 무비로 재배라고 하면 농학 실험에서 무처리구, 무비료구와 같은 의미와 혼동되어 오해가 생기는 경향이 있어 자연 피비를 활용한다는 원리정신을 철저하기 위해서 자연농업 실천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가족의 분노를 사용한 피비를 배제하고 원시적인 비료 개념을 부정하며 화중의 삼소주의 생생원리를 통해 종교적 설명을 근거로 한다. 이점이 유기농업과의 차이다.
 반면에 富岡의 자연농업은 과학적인 근거와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부강이 농업 학교를 졸업했고, 식물물리학자로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유기농업이 환경문제와 더불어 그 추구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생태적 농업에 말한다면 이들은 자연에 순일하여 풀이된 '나=자연'의 인식 혹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 신(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연역적 형태를 취한다. 그럼 富岡의 자연농업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자연농업의 시간과 목표
 富岡의 자연농업은 과학적이다. 일단 그것은 땅을 갈지 않고(무경기), 비료를 안 주며(무비료), 농약을 안 치고(무농약), 잡초를 뽑지 않는다(무제초), 실제로 富岡은 30년 동안 한반도 자신의 땅을 갈지 않았다. 富岡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일체무용"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인력의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하고 배나 보리를 수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농사짓지 않아

◇ 96학년도 신입생 설문조사 결과

54.9% 소신지원 ... 본교 입학에 대체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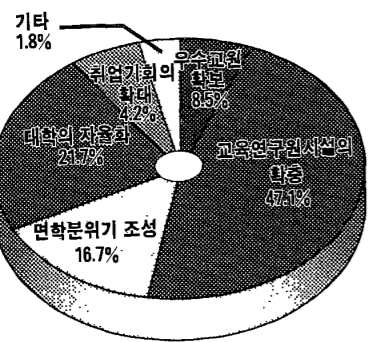
학부생, 소속감 약화문제로 고민

대학발전 위한 연구시설 확충과 자율화 필요

학생생활연구소(소장=고진호·교육학)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9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96학년 학생들의 대학관, 본교 인지도, 대학생활 및 적응, 가치관 및 사회의식' 등이 잘 나타나 있다. 한편 이 조사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아울러 캠퍼스별, 단과대별, 학부 및 학과별, 성별 등으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했다. (편집자)

1. 대학관

-컴퓨터와 영어 선호
-교육시설의 확충과 대학의 자율화 필요



(대학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96학년도 신입생들은 학문에 전념하는 것을 입학후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응답하였다. 즉 입학후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을 묻는 질문에 41.6%가 학문에 전념하겠다고 응답하여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소속 단과대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이부대(55.9%), 문과대(51.0%), 법과대(50.0%), 경주 한의과대(54.1%)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학문에 전념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교우관계 증진이 19.9%, 취미활동이 15.0%, 교양 및 정서함양 11.5%, 동아리활동 8.4%의 순이었으며,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각각 2.2%와 0.7%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규학습 이외에 가장 습득하고 싶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2.0%가 컴퓨터, 33.0%가 영어라고 응답해 국제화 경향과 사회라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컴퓨터나 영어에 대한 선호는 모든 단과대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과대에서는 컴퓨터 선호도가 57.1%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여학생(45.8%)이 남학생(39.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일어나 중국어, 기타 외국어에 대한 응답은 각각 3.6%, 3.3%, 0.9%로 국제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한 편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의견도 10.7%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리 선호도가 높지 않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서울의 예술대에서 30.0%, 경주 불교문화대에서 25.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주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중국어 및 운동에 대한 선호가 각각 17.1%와 22.9%로 매우 높고, 의대에서도 운동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 정규학습 이외에 습득하고 싶은 분야를 보면 대체로 컴퓨터와 영어라는 현실변명과 취업에 대한 준비로서의 성격이 강한 분야를 선호하고 있으며, 경주 한의과대 일부 대학에서는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적 특성과 연계된 부분을 발전시키는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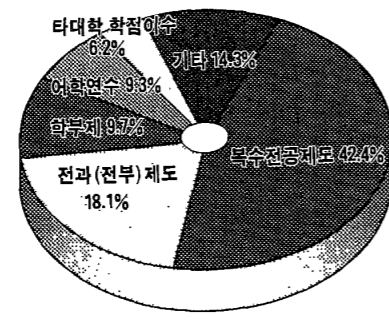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대학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연구시설의 확충(47.1%)이며, 이외에 대학의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21.7%)과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16.7%)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수교원의 확보(8.5%)와 취업기회의 확대(4.2%)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상은 교양과 인격을 갖춘 교수 37.2%, 전문지식 전달에 뛰어난 교수 22.9%, 인간적으로 따뜻한 교수 18.9%,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하는 교수 1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5.6%), 직업 및 진로지도에 헌신적인 교수(2.6%)는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수상은 학문연구나 강의에서의 능력보다도 오히려 인격이나 교양, 인간적인 면동 등 지식 외적인 측면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교수상에 대한 의견은 성별은 물론 학부소속 학생이나 학과소속 학생, 거의 모든 단과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경상대(32.9%)와 경주 상경대(31.7%)에서는 전문지식 전달에 뛰어난 교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예술대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하는 교수라고 응답한 학생이 60.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다른 대학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본교인지도

-본교 입학에 대체로 만족
-복수전공에 가장 큰 관심



(본교 교육제도에 관심있는 요소)

96학년도 신입생의 본교 입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2.3%(매우만족 5.6%, 만족 36.7%), 보통 40.3%, 불만족 17.4%(매우

불만족 4.6%, 불만족 12.8%)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캠퍼스 별로 서울이나 경주간에 차이가 없다. 입학에 대한 만족도는 학과소속 학생들이 46.5%로 학부소속 학생들의 3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이 44.7%로 여학생의 39.7%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입학을 만족해 하는 이유는 54.9%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과와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여건이나 종교적 이유는 각각 6.5%, 3.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만족이유는 캠퍼스 단과대별 차이가 있는바, 본인 의사에 의한 소신지원이라는 응답이 서울은 61.6%로 매우 높은 반면 경주는 48.0%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학과의 장래성이라는 응답은 서울이 21.3%이고 경주는 34.4%로 경주가 높았다. 단과대학별로는 서울 예술대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소신지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0.0%로 경주의 과대학의 72.7%와 함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주 자연과학대의 경우 전공학과라는 응답이 51.3%, 서울 생자대의 경우 의과대학이 30.8%, 불교대의 경우 종교적 이유라는 응답이 15.4%로 타 단과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과나 학부별, 성별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본교입학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교육여건이 4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평가 27.0%, 전공학과 9.7%, 종교적 이유 7.1%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이유로서 교육여건에 대한 응답은 서울이 59.3%로 과반수를 넘는 높은 비율인 반면 경주는 36.3%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이부대에서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교대(72.7%)와 공과대(75.6%)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는 경주의 의과대학이 60.0%, 서울의 법과대가 56.3%로 높았다. 여타의 이유를 보면 종교적 이유라는 응답에 있어 서울이 3.6%인 반면 경주는 10.4%이고 전공학과라는 응답도 서울 4.4%인 반면 경주는 14.7%로 서울과 경주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교입학에 대한 만족도는 95년도의 38.3%보다 약간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만족요인도 본인의 소신지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족의 이유로서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만족 요인으로서는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우수학생 유치 전략과 함께 입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의 조성된 교육여건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교에서는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폭넓은 학문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집에 있어서의 학부단위 모집을 비롯하여 복수전공, 전과(전부), 계절학기, 여학생수 등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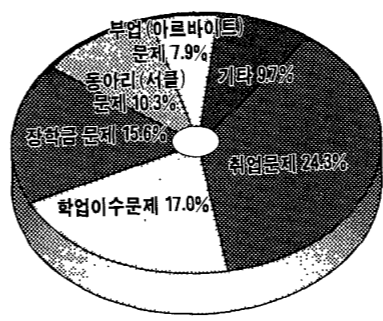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는바, 신교육과정 중에서는 복수전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즉, 전체학생의 42.4%가 복수전공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단과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에게서(44.3%) 여학생(39.6%)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부단위 모집을 통한 선택의 폭 확대와 함께,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복수전공이나 전과(전부)제도와 기타 제도가 유익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의 폭 확대,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접목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신교육과정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물론 의사전달의 오류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수시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통하여 긍정적 인 측면을 확대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대학생활 및 적응

-생활의 자유가 가장 큰 변화
-취업 및 진로에 높은 관심



(대학에 들어와 가장 알고싶은 것)

대학에 입학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생활의 자유에서 오는 해방감이 3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강의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막연한 소신지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족의 이유로서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만족 요인으로서는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우수학생 유치 전략과 함께 입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의 조성된 교육여건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자유에서 오는 해방감이라는 응답은 서울의 생자대에서 53.3%로 과반수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40.7%로 여학생의 27.0%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의시간의 활용에 대한 막연함이라는 응답은 여학생이 24.7%로 남학생의 16.9%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이과대의 경상대의 경우 소속감의 약화에 따른 불안감이 각각 21.1%와 28.6%로 다른 단과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부소속 학생들은 특히 소속감의 약화 문제에 대해 학과소속 학생들보다 높은 변화를 지적하고 있으며(각각 13.7%와 8.3%), 선후배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과소속 학생들이 11.5%로 학부소속 학생들의 6.6%보다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의 짜여진 틀 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불안과 갖고 있어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하고 웅망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규과정 이외에 습득하고 싶다고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과외활동의 장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배나 수간선생 학과목 선택의 상의 상대로는 선배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친구 23.1%, 학업지도교수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조교나 교과과에 상의하겠다는 응답은 6.7%와 1.6%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선배에 문의한다는 응답이 학부에서는 41.1%인 반면 학과에서는 52.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선배에 관계의 정밀이 유리한 소속별 특징 반영하고 있으나 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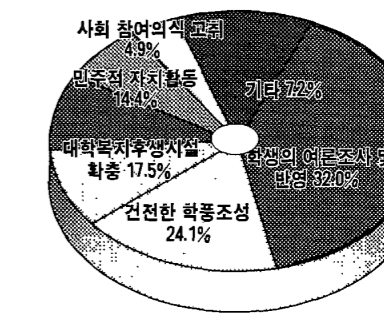
결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화상대는 졸업이 용이하고 부담감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선배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대한 선호는 낮았다. 이것은 행정기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편의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학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 학생들이 학사 불연관한 정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7.1%)에서 취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리고 서울의 예술대(30%), 불교대(21.1%), 법과대(21.0%)에서는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요구가 다른 단과대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경주의 한의과대(40.3%)와 의과대(30.8%)에서는 개인상담 요구가 많았다. 개인상담 요구는 특히 학과에서 22.2%로 학부 16.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입학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제공하기를 바라는 정보는 대체로 일치하며 취업문제도 귀속되고 있는바, 학생생활연구소를 비롯하여 현재 취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취업과와 기타 취업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기간제교원제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체계의 구축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주기 위한 체제구축과 함께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한 서비스기반 학생생활연구소의 역할도 중요하다.

4. 가치관 및 사회의식

-통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총학 학생들의 요구 반영해야



(총학활동의 최우선 과제)

남북통일에 대한 응답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하나 혼란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견해가 81.0%로 압도적이었으며,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7.4%로 88.4%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은 남북통일에 존재하고 있는 격차로 인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7.7%, 통일보다 현재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0%로 11.7%는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통일의 당위성이나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학생회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과제로는 학생의 여론조사 및 반영이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전한 학풍조성이 24.1%, 대학 복지후생 시설 확충 17.5%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집단으로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민주적 자치활동 14.4%, 사회현실 참여의식 고취는 4.9%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총학생회는 사업방향 설정에 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내고 이것을 활동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연구소)

열린공간! 학생생활연구소는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여러분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연구소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전분야별 상담(개인 및 집단상담)
- 심리검사
- 해의유학 상담지도
- 소집단 모임
- 교직원자녀 인적성검사
- 구성원 요구조사 및 대학생 실태조사
-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연구소 이용절차>

도움받을일 → 방문(신청) (봉사실) → 초기면접 (시간약속)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 계속상담 (추수지도) / 결과해석 → **종결**

<연구소 이용안내>

- 이용시간: 화기종: 월~금(오전 9:00~오후 5:00)
- 방학중: 월~금(오전 9:30~오후 3:00)
- 위치: 본관 2층
- 전화: 구내 3506
- 주소: 경주 필동 3가 26번지

심리검사

심리적 문제해결 및 진로지도를 위해 검사 및 해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

- 지능검사(K-WAS)
- 다면인성검사(MMPI)
- 성격유형검사(MBTI)
- 직업적성검사
- 적성진단검사
- 흥미검사

신청 및 검사

- 심리검사는 수시로 접수·실시됩니다.
- 검사후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해의유학안내

해의유학에 대한 정보 및 상담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유학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 유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유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소집단모임 및 강연활동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증진 및 자기성찰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제

- 학습전략
- 정신건강
- 대학생활과 스트레스

개인상담

전문상담원과 상담교수들이 학생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학업문제
- 성격 및 가치관
- 이성교제
- 취업(진로) 및 미래설계
- 학과(전공)선택
- 대인관계
- 종교문제

상담방법: 방문, 전화, 서면, PC통신

상담신청: 수시접수(봉사실)

집단상담

상담자의 지도와 동료들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자신을 탐색·이해하고 보다 성숙된 수준으로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상담내용

- 대인관계
- 자기성장
- 스트레스 대처
- 금연

진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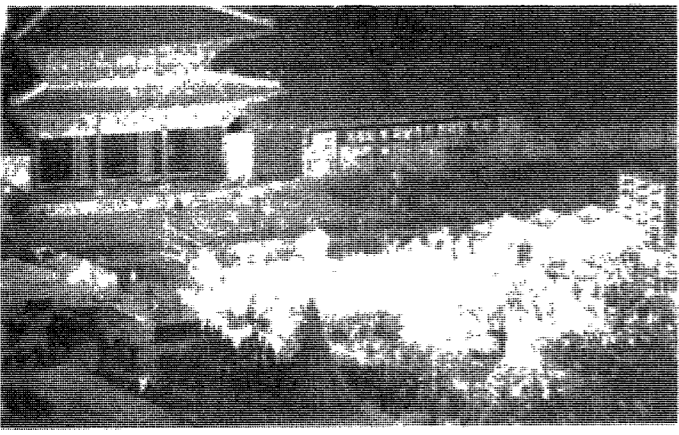
개인의 진로의식을 고양시키고 합리적 진로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공정보

- 취업대비 인·적성검사
- 직업별·기업별 취업정보
- 정기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계 취업대비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민족성 반영한 문화유산 재조명할 때



해마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미술·영화·문학의 해 등을 설정해 놓고서 그 한해가 지난 때마다 아쉬움을 달래곤 한다. 다시 새해를 '문화유산의 해'라고 하니 이 또한 구두선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그나마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 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발전이란 커다란 물줄기 아래 개발논리는 언제나 문화유산을 압도하여 왔다. 공장부지나 주택지의 확보에 밀려 유적지는 줄어들고 귀중한 문화유산은 파괴되어 다시 풀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보편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문화유산의 해'란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문화유산이란 그 민족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룩된 정신적 소산이므로 그 민족문화의 추이를 짐작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중한 자산임에도 틀

림없다. 그 민족이 문화민족이고 또 문화민족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본질적 요소는 바로 문화재로써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빛나는 문화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에 대한 문화적 자산의 개발은, 외면한 채 오로지 물질적 경제적 추구만을 능사로 생각한 나머지 문화의 집중화, 또는 획일화 현상이 도처에 만연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 나라는 그만큼 불행하다. 지난 5년 가까운 세월동안 개발 우선책과 문화재 보호정책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을 거듭해오던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문제의 역사 선전이 유적보호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오해당한 듯싶은 씁쓸한 웃음이 우리의 문화정책의 역량을 새삼 느끼게 한다.

사실 그 민족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박물관을 찾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첨거뭇 채 임시 박물관

관이 있을 뿐이다. 새삼 박물관 철거에 대한 시비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슬한 유물들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참담할 뿐이다. 보나 마나 콘크리트 장벽의 시멘트 독 속에 휩싸여 있을 박물관 수장품을 생각한다면 '문화유산의 해'를 설정한 이 시대의 독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화재란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상을 입고 만다. 문화재란 한 개인이나 국가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이들은 인위적 파괴와 공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란 본래의 장소를 떠나서는 그 가치가 절감되고 만다.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의 상당수는 과거 일제의 문화재 수탈과 같은 만행을 통한 그 잔재이다. 이제 이들은 인제와 공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도 본래의 장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해주는 유물로서 축적한 것이 우리나라 전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 물론 국가의 수도로서 나라를 대변하는 유물을 수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부르짖는 현시점에서 적의 코앞에 노출된 장소에 반만년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집중해 둘 필요는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로 한 채 새 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 요원한 세월동안 지하 수장고에 갇혀, 있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도 '문화재 고향보내기 운동'은 '문화유산의 해'에 꼭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장충식
(인문과학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유령 신드롬' 열풍

현대인의 나약성 탈피해야



◇ 상실의 시대에서 박탈감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을 겨냥해서 시공을 넘나드는 유령과의 사랑이야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생과 내세는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시대와 동·서양을 떠나 누구나가 이 물음의 해답을 구하려 한다.

그리고 올 한해는 유난히 이런 물음이 대중들에게 유행처럼 퍼지면서 현대인의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영령의 신부' '만득이 시리즈' '고스트 맘마' 등 전성이나 유령을 소재로 한 책, 영화, 드라마 등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 중 영웅적 주인공이 약한 귀신을 물리친다는 이야기의 '퇴마록'은 서점가에서 팔리리베스트가 되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일로 울려진 '만득이 시리즈'는 '만득이 신드롬'으로 그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어 TV코미디의 소재가 되는 등 귀신과 유령이란 소재의 상업적 가치는 날로 상향곡선을 그리는 추세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90년대말 문화적 시류로 자리잡아 가는 것일까?

이것은 21세기를 앞두고 가장공간 속을 날다느리는 과학적 '문명'이 '가' 자의든 타의든 현대인들을 괴롭힌 공간으로 몰고 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간세상에 대한 환멸감, 가치관의 혼돈에서 오는 상실감이 주



는 현대인의 위기 의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이 이겨내지 못하는 의식적 나약함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신빙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역술이나 점성술사를 찾아 그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미래를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 우리나라의 사이비 무속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가 오래도록 지나온 종교관이나 여러 무속신앙에 대한 반대편 수용자들의 맞닥뜨린 현실을 우리나 우리나라의 사이비 무속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가 오래도록 지나온 종교관이나 여러 무속신앙에 대한 반대편 수용자들의 맞닥뜨린 현실을 우리나 우리나라의 사이비 무속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입품 연극

"좋은 연극이란 어떤 연극일까?" 연극을 전공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정말 궁금해서인지, 그저 해본 말에 불과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는 대답이 곤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런 때를 위해서 질문만큼이나 난해(?)한 대답을 하나 마련했다.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각 대학과 크고 작은 많은 공연장에서 또는 현장에서 연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도 내용도 가지가지여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버금가는 상업연극에서부터 서구연극이론의 전통적 맥락에서 본 전통사실주의, 불거리가 풍성한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하다. 게다가 요즘의 즉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연극양상은 불거리와 들을 거리가 주제보다 오히려 앞서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프로페셔널하면 "좋은 연극"이어야 한다. 물론 만드는 사람들도 이 "완성도"라는 화두를 잡고 적게는 두달 많게는 석달을 노심초사한다. 어쩌면 "완성"이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저 우리는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어느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그 형식이 무엇이든, 그 예술인의 체취이고 정신의 향기이며 사상이어서 결국 그 예술인 자체이다. 그런 발자취는 기본적으로 관객에게 서야 할 것이다.

부족 '적수입'되는 공연예술이 많아지고 있다. 항상 있어온 현상이지만 그래도 과거의 그것들은 대학에서 학구적인 측면으로 예를 들어 '세익스피어 축제'기간 중 정통 세익스피어 극단을 초대해 본다면, 유명한 실험극단들을 특별한 주제하에 모셔온다거나 하는 '명목'이 있었더라면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도 그러한 '명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수입되는 공연의 선전을 보면서 "사람만 줄었다"라는 어느 호화로운 아파트가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무슨 얼토당토 않는 비교냐며, 추측보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조기 영어 유치원이 생기는 마당이라고 조소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문화까지도 그런 수준이 되었나 싶어서 연극하는 입장으로서 씁쓸했다. 그래서일까, 창작극이 빈곤하지 않느냐는 애정어린 비판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외국의 앞선 공연예술을 수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배울 점도 많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공연이 한단계 오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있었는가. 씁쓸하다는 생각 자체가 문화적 열등감에서 오는 자책인지도 모르며 또 문화외도기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다. 연극은 특히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관객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관객의 수는 많아졌지만 자꾸만 우리 연극에서 멀어지는 관객을 어떻게 끌어들이 것인가.

물론 그런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 뮤지컬을 우리식으로 변안한 '지하철 1호선'이 성공리에 무기한 공연되고 있고 상업적이고 화려한 뮤지컬에 반대하여 작지만 알차고 우리 정서를 간직한 소규모의 뮤지컬이 준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한편으로는 창작극을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런 성공적인 모방을 계속하면서 철저한 준비로 '그래도 막은 오른다'식의 인위적인 태도를 버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정은
(연극평론가 박사과정)

문화 시평

어느 민족에 있어 지배적이 되어야 할 것이 가장 강력하고 법인가 아니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법인가에 대해 법학자들은 논쟁한다. '로마법'이 최고의 모범인 전자의 법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법 감각이 표현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예컨대 '게르만법'같은 민족법은 거칠며 미신적이고 비논리적인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허황된 것이지만 그것은 세속적이고 토속적인 풍속과 감각에 완전히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 경우에서처럼 법이 더 이상 인습이 되지 못 할 때에는, 그저 '명령'할 수 있으며 강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니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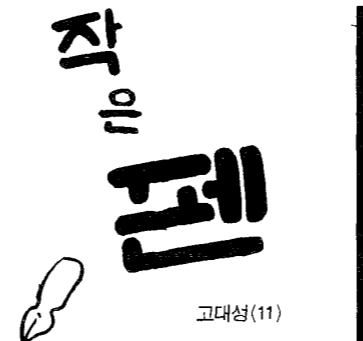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의 법은 어떠한가. 전문부터 3백39자인 한 문장부터 만들어진

법학의 의미

헌법은 보지만 해도 위축되게 한다. 지난 한해 우리에게 법은 어떻게 느껴졌는가. 최규하 전대통령을 범정에 세웠을 때 법원에 따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끝내 침묵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5-18 항소심판결문에서의 '항쟁불법'을 우리를 웃게하지 않았던가, 혹은 나 했던 결과가 역시나로 바뀌던 순간 터져나오는 웃음... ▲달력

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97년도는 다가왔다. 지난해의 모든 나쁜 것은 잘라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면 송으려면 여전히 연결고리가 단단한 매듭으로 이어져 있다. 지난해 말 이어졌던 '노동법' '인기부법'개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노동법이 원지도 모던 월급쟁이 부인을 추운 겨울 더욱 춥도록 실감나게 만들었고, 안전 기획부라는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한 곳은 여전히 소시민에게도 거부감을 느끼게 했다. ▲올해는 대선이 있고, 박종철씨의 죽음이 1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늘진 이에게 빛으로, 명멸이 아닌 당연한 수행으로 느껴지는 법이 피길 세대에 기원해 본다.

(현)



그대성(11)



학생회관 1층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 렉시컴 슈퍼 2000

수능! 유학! 토익! 토플이 문제라구요? 걱정없다. 렉시컴이 있으니까

우리들 영어실력-영어사전도 책임있다!

영한사전, 영영사전, 한영사전, 동의어 사전까지 모두다 색보 션다구요? 하지만 필요할 때 손에 없는 사전이라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 언제나 손 안에 있는 전자 영어백과 사전, 렉시컴 슈퍼 2000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가장 우수한 제품보다 기능은 우수하고, 쓰기는 편리한 렉시컴 슈퍼 2000 - 영어실력이 달라집니다.

국내최초 TOEFL 지원 중학생에서 대학생, 번역전문인까지 사용가능 영어를 처음 배우는 중학생부터 번역 전문인까지 함께 쓰는 전자사전, 렉시컴 슈퍼 2000, 대학생, 직장인에게 유용한 토플(TOEFL) 속기카드를 선착순 1,500명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카드발매: 소비자 49,000원)

용량64Mb 화면크기320x128 국내최대 최신LCD화면과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최대용량의 최첨 단 전자사전입니다.

전자사전 개척자 Lexicomp super 2000 렉시컴 슈퍼 2000

한국교육 주스, 서울대대우 북미본동 124-20 (교리B/D) TEL: (02)362-9995(대) 362-9521~2, 362-1646~8, 362-2404~6

한울교육 주스, 서울대대우 북미본동 124-20 (교리B/D) TEL: (02)362-9995(대) 362-9521~2, 362-1646~8, 362-2404~6

한울교육 주스, 서울대대우 북미본동 124-20 (교리B/D) TEL: (02)362-9995(대) 362-9521~2, 362-1646~8, 362-2404~6

97년 정시모집 경쟁률 3.45대 1

특차 합격자 통보과정에서 혼란 겪기도

'97학년도 본교 신입생 선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평균 3.4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 20일 마감됐다.

정시모집 일정은 오는 3일 예비소집을 갖고 4일부터 7일까지 각 과별로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를 치른다. 합격자는 오는 1월 25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시모집 나운데 속하는 본교는 서울 캠퍼스의 경우 연극영상학부 연극영상 전공이 34.3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간 영어영문학과는 24.92대 1, 지리교육학과 14.48대 1, 아간 중어중문학과가 1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평균적으로는 총 5.23대 1을 보였다. 반면에 경주캠퍼스의 경우 한국어문화부가 0.89대 1, 사회복지학과가 0.90대 1, 법철학과가 0.79대 1, 법학과가 0.87대 1 등 4개 과에서 미달 현상을 보이며 총 1.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12일 있었던 특차 모집시 특차전형에서 서울캠퍼스의 경쟁률은 1.65대 1로 나타나 미달학과가 많았던 지난 해에 비해 조금 높아졌다. 그 이유로 특차 모집자격 완화와 인원 증원을 들 수 있다. 수능 지원자율이 7%에서 인문계는 8%, 자연계는 10%로 완화되었고 특차모집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60, 70%~100% 늘어났다. 경쟁률의 평균 경쟁률은 0.74대 1로 나타났다. 특차모집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수능점수 지원자율이 없었던 연극영상학부 연극영상 전공으로 10명 모집에 4백 99명이 지원, 4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차전형 수석은 연극영상학부를 지원한 최중갑군으로 수능 3백24.4점을 맞고 1점전 환산에 8백80점을 받았다.

한편, 특차모집 결과발표가 있던 지난 16일 본교에서 각 고등학교로 보낸 합격자 명단 중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어 표기된 명단이 보내져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 사건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비롯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른 명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각 고등학교에 합격자명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17일 본교에서는 즉시 지원자가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합격자·불합격자 명단을 다시보내며 보낸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우수특기자 입학 체육부 발전기대

올해 본교 체육부(부장=정창현)에 야구부 11명, 축구부 10명, 농구부 12명, 사격부 2명이 입학한다. 이 중 최고 수준의 골키퍼인 축구부의 안효연 선수, 야구부의 박한이 선수, 농구부의 김정재 선수 등

대표급 선수가 9명이 있다. 이에 대해 조정진 계장은 "올해는 우수한 선수가 예년보다 많이 들어와서 체육부의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비롯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른 명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각 고등학교에 합격자명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17일 본교에서는 즉시 지원자가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합격자·불합격자 명단을 다시보내며 보낸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이 사건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비롯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른 명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각 고등학교에 합격자명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97년도 신입생 모의 TOEIC 실시

취업과(과장=김철석)는 97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27일 모의 TOEIC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일정은 다음달 26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수험증을 나눠주고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내 강의실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시사영어사 YBM에서 문제를 제공받는다. 시험역량 분석결과에 50일 후인 오는 3월 중순경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취업과 김철석 과장은 "이번 시험은 1학년때부터 외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업에 관심을 갖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계산원 97년 신입생 모집

졸업시 해외자매대학 편입·연수 특혜

전자계산원(원장=유광진·정치외교학)은 97학년도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과 전산·정보 경영자과정(3기)을 모집한다.

전자계산 2년과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사 2급 전공목 응시자격 부여, 국가기술자격검정기사 2급 취득시 대학졸업학력인정 독학사 시험 4단계중 2단계 면제의 특혜를 받는다. 그리고 학기별로 정보처리기사 2급 특강 실시 등 국가 기술자격 취득과 97%이상의 높은 취업률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학생회·동아리 주치의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졸업생 중 희망자는 호주 샌츠틀 컨슬턴트대학과 뉴질랜드 링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편입할 수 있고 일본 동북전자계산기 전문학교에 유학할 수 있다.

전산·정보 경영자과정은 경영자·관리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치인, 군인, 주부를 모집대상으로 주2일 16주의 교육을 받는다. 희망자는 일본 및 호주, 뉴질랜드 자매대학에 해외단기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 특별전형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고 일반전형 접수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27일까지이며 면접은 2월28일이다.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1점2배명(주·야)을 선발한다.

전산·정보 경영자과정(3기) 접수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등록선착순으로 1백20명(주·야)을 선발한다.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과 전산·정보 경영자과정(3기)모집 원서교부와 접수처는 해곡관 6층 전자계산원 교학과에서 실시한다.

'동국 참사랑 인증' 제1기 교육생모집

학교보증 학생육성...기업신뢰 유도

취업과(과장=김철석)는 97학년도 취업특화 교육을 위한 '동국 참사랑 인증'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취업과에서 받고 응시자격은 97학년도 3학년 재학생으로 평점평균이 B이상인 자로서 전공주요교수의 추천을 받고 98학년도 하반기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50명을 면접시험으로 선발한다.

'동국참사랑 인증' 기준은 인성학까지 학과산성이 평점평균 B이상이고 본 프로그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도서관 방중 부분휴관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은 97년 신입생 입시일정에 따라 방중 부분휴관을 실시한다.

원서접수, 체점 및 대조작업 관계로 12월18일부터 오는 7일까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제1열람실을 휴관하며 3일부터 7일까지 제2열람실과 제4열람실을 휴관한다.

한편 방학일정 관계로 자료실 이용시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매주 토요일은 휴무이다.

학복위특강 8일로 연기

제12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무역4) 이하 학복위는 지난 12월26일 개강하기로 했던 겨울특강을 오는 1월8일로 연기했다.

특강이 늦어진 이유는 '97학년도 신입생 입시일정' 때문이며, 모든 입시일정이 끝나는 1월6일 이틀후인 1월8일로 개강이 늦어진 것이다.

학복위와 학교측간에 문제가 되어왔던 난방문제는 학교에서 무료로 난방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한편 개강연기로 인해 특강은 다음달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제1차 생협학교 개최

제29대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아간경영4)와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는 지난 12월20일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 제2세미나실에서 '1차 생협학교'를 열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번 생협학교는 학생회간부 중심으로 40여명이 참가했으며 △생협이란? △생협이 출범하기 위한 준비 △복지대장 현황과 대안등의 주제를 갖고 강의와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원진욱(사) 부총학생회장은 "생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는 저변확대를 위해 재학생 중심의 이력자리를 다시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학과소식

수학과

지난 11월24일 열린 전국 대학수학경시대회에서 본교 수학과 4학년 재학생인 조덕민군이 노력상을 수상했다. 본교 수학과 창설 이래 최초의 이번 수상의 시상식은 지난 14일 있었다.

신문방송학과는 지난 20일에 제1호 학과지를 발간했다. 학과홍보, 학생들의 시·소설·수필 등 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진 학과지는 방학 중에 집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도서관 방중 부분휴관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은 97년 신입생 입시일정에 따라 방중 부분휴관을 실시한다.

원서접수, 체점 및 대조작업 관계로 12월18일부터 오는 7일까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제1열람실을 휴관하며 3일부터 7일까지 제2열람실과 제4열람실을 휴관한다.

한편 방학일정 관계로 자료실 이용시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매주 토요일은 휴무이다.

학복위특강 8일로 연기

제12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무역4) 이하 학복위는 지난 12월26일 개강하기로 했던 겨울특강을 오는 1월8일로 연기했다.

특강이 늦어진 이유는 '97학년도 신입생 입시일정' 때문이며, 모든 입시일정이 끝나는 1월6일 이틀후인 1월8일로 개강이 늦어진 것이다.

학복위와 학교측간에 문제가 되어왔던 난방문제는 학교에서 무료로 난방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한편 개강연기로 인해 특강은 다음달 2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제1차 생협학교 개최

제29대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아간경영4)와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는 지난 12월20일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관 제2세미나실에서 '1차 생협학교'를 열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번 생협학교는 학생회간부 중심으로 40여명이 참가했으며 △생협이란? △생협이 출범하기 위한 준비 △복지대장 현황과 대안등의 주제를 갖고 강의와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원진욱(사) 부총학생회장은 "생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는 저변확대를 위해 재학생 중심의 이력자리를 다시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학과소식

수학과

지난 11월24일 열린 전국 대학수학경시대회에서 본교 수학과 4학년 재학생인 조덕민군이 노력상을 수상했다. 본교 수학과 창설 이래 최초의 이번 수상의 시상식은 지난 14일 있었다.

신문방송학과는 지난 20일에 제1호 학과지를 발간했다. 학과홍보, 학생들의 시·소설·수필 등 문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진 학과지는 방학 중에 집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학·전·무·대

긴급수배

○...억울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성적적시기간 중 학점에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담당교과목 교수를 찾아가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구나, 그 중 몇몇 교수들은 조교들에게 연락처만 남기고 컴백한 경우도 있는 모양.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아닐는지.

이로 인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은 하소연 길을 열고. 이에 생긴충찬 한 학생 왈 "푸두두... 긴급수배, 긴급수배!! 교수님을 찾아라"

교래싸움

○...본교 학생회관 총학생회실에서 화재가 발생, 현재 학생회관 1층은 물론 1층에 있던 공중전화,자판기,현금자동인출기 등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데.

학교측은 화원이 규명되지 않는 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총학생회측은 화원을 알 수 없다고 하고...

학원까지 가서 전화하고 온 한 학생 왈 "교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네."

드라마

○...지난 16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는 드라마틱한 일이 생겼는데.

다음인 본교에서 각 고등학교에 보낸 합격자 명단이 전산처리 도중 잘못되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 명단을 보낸 것.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고등학생들의 화가 및 불만이다.

이에 한 학생 왈 "연극영상학부의 인기는 바로 드라마틱한 학교행정 덕분인가..."

새벽작전

○...노동·안기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새벽작전.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단지 7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야당의 정치가 아닌 여당만의 잔치로 전락.

독재시대가 끝나고 문민시대가 열렸지만 예만 국민과 피해자. 국민의 비탄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지.

거기다 당장 지하철이 파열한다니 서술시 교통문제도 심각하게 봤던 일.

이에 회전문대자 한 마디 "은행에서만 날치기 조심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날치기 조심"



◇우리가 지나간 자리... 본교 만해광장에서는 각 학과의 운동화나 등화 등 많은 행사가 치러진다. 그러나 행사후 뒷처리를 잘하지 못해 항상 쓰레기가 남아 있다. (이태훈 기자)

졸준위, 학관화재로 1천만원 피해

졸업자명단 등 자료전소, 운영에 차질

제9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상욱·경제3) 이하 졸준위는 지난 12월3일에 있었던 학생회관 화재로 약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화재로 졸준위는 사진판별과 액자사진이 물에 젖고 관망 5만 원 상당의 96년도 졸업앨범이 수십 개 손실돼 큰 피해를 보았다. 또한 컴퓨터의 파괴로 졸업자 명단과 사업계획안이 사라져 97년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상욱(경제3) 위원장은 "이번 화재로 집기와 앨범, 액자 사진이 망가졌지만 집행부의 수작업을 통해 많은 양이 복구되어 졸업생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며 "아직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의 논의가 안된 피해액 보상 때문에 1월 사업이 불확실하지만, 소강당 한편에 사무실을 마련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졸업앨범은 각 단과대별로, 액자 사진은 졸준위에서 졸업식 전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경상대 컴퓨터 도난

지난 12월15일 경상대(회장=양한승·정보관리2) 학생회에서 컴퓨터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 물품은 램, CPU, CD-ROM 등 50만원 상당이며 '복도 위쪽 창문으로 침입해 출제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난 경위를 밝혔다.

또한 경상대 한 관계자는 "도난 물품도 물론이지만, 지난 학생회 자료 및 97년 학생회 사업 준비안이 분실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방학중 외국어 특강 안내(1, 2차)

과목	영어회화 (초급/중급/고급)	TOEIC	Listening(AFKN)
강사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 교수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 교수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 교수
기간	1차: '97.1.6-13 2차: '97.2.3-10	1차: '97.1.6-13 2차: '97.2.3-10	1차: '97.1.6-13 2차: '97.2.3-10
시간	09:00-10:30/ 10:40-12:10 (90분 강의)	09:00-10:30 (90분 강의)	10:40-12:10 (90분 강의)
수강료	50,000원	30,000원	30,000원
강의실	외국어교육원 강의실	Lab B실	Lab B실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L동 2층)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L동 2층)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L동 2층)
접수기간	1차: '97.1.6(월)까지 2차: '97.2.3(월)까지		

외국어교육원

전과(부)시행 공고

- 원서접수: '97. 2. 19(수)~21(금)
- 전과허가 발표: '97. 3. 3(월)
- 전과대상학과: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경쟁행정학과 제외)
- 전과제한: 캠퍼스간, 야간에서 주간학과로, 한의(예), 의(예)전과는 불허
- 지원자격: 1학년과정을 수료, 총성적의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2학년전입예정자
- 전과허용인원: 학과 입학정원의 20%
- 접수처: 전과(부) 희망학과(부)소속 교학과
- 구비서류
 - 전과원서 나.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전과서류제출용)
 - 자기소개 및 학업이수계획서
- 전과(부)자의 교직신형: 전과후 교직과정 이수 신청시기를 상실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이 감수하여야 함.
- 문의처: 본관 3층 학적과(TEL 260-3039, 3040)

복학·재입학원 접수공고

- 복학·재입학원서 접수기간 '97. 2. 17(월)~2. 19(수)
-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본관3층)
- 구비서류
 - 일부복학자-복학원서 1부 나. 군복학자
 - 1)기전역자
 - 복학원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전역일자 기재)
 - 2)전역예정자('97.4.1이내 전역가능일자)
 - 복학원서 1부
 - 전역예정자 각서1부
 - 다. 재입학자-재입학 원서 1부

교무처장

1997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모집

전자계산(원장=유광진) 이상 학력 소지자 (수능시험과 무관함)

- 원서교부/접수기간: '97. 1. 27(월)~1. 31(금) 09:30-19:00
- 전형방법: 서류전형
- 특전사항: 특별전형에 한하여 전일제 및 입학금 면제. 모집정원의 30%이하에서 특별전형대상자 접수 인원이 초과 할 경우 조기마감할 수 있음.
- 원서교부/접수기간: '97. 2. 17(월)~2. 27(목) 09:30-19:00 (토·일요일도 교부/접수함)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97. 2. 28(금) (주간 14:00, 야간 18:30)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해곡관 6층 교학과)

- 입학원서(본인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인2에)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2급 응시자격부여(국가기술자격 2급 취득시 대학졸업학력 독학사 시험 4단계중 2단계 면제)

- 호주 샌츠틀 컨슬턴트 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
- 뉴질랜드 링컨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예정)
- 일본 동북전자계산기 전문학교 유학
- 높은 취업률(97%) 및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대우
-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실습교육환경
- 대학 평의사에 위치한 쾌적한 교육환경 및 다양한 전의사설

입학문의

TEL: 260-3522-3, 260-3598, 264-0502
FAX: 264-0502, 264-0504
E-MAIL: ZPIDC03@chollan.daum.co.kr
온라인등록처: 전라안 메직물 GO DUCSI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1997 전산·정보 경영자과정 (3기)모집

전자계산(원장=유광진) 이상 학력 소지자 (수능시험과 무관함)

- 원서교부/접수기간: '97. 1. 27(월)~1. 31(금) 09:30-19:00
- 전형방법: 서류전형
- 특전사항: 특별전형에 한하여 전일제 및 입학금 면제. 모집정원의 30%이하에서 특별전형대상자 접수 인원이 초과 할 경우 조기마감할 수 있음.
- 원서교부/접수기간: '97. 2. 17(월)~2. 27(목) 09:30-19:00 (토·일요일도 교부/접수함)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97. 2. 28(금) (주간 14:00, 야간 18:30)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해곡관 6층 교학과)

- 입학원서(본인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인2에)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2급 응시자격부여(국가기술자격 2급 취득시 대학졸업학력 독학사 시험 4단계중 2단계 면제)

- 호주 샌츠틀 컨슬턴트 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
- 뉴질랜드 링컨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예정)
- 일본 동북전자계산기 전문학교 유학
- 높은 취업률(97%) 및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대우
-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실습교육환경
- 대학 평의사에 위치한 쾌적한 교육환경 및 다양한 전의사설

입학문의

TEL: 260-3522-3, 260-3598, 264-0502
FAX: 264-0502, 264-0504
E-MAIL: ZPIDC03@chollan.daum.co.kr
온라인등록처: 전라안 메직물 GO DUCSI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210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22년의 전통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그림=강성수

간헐적 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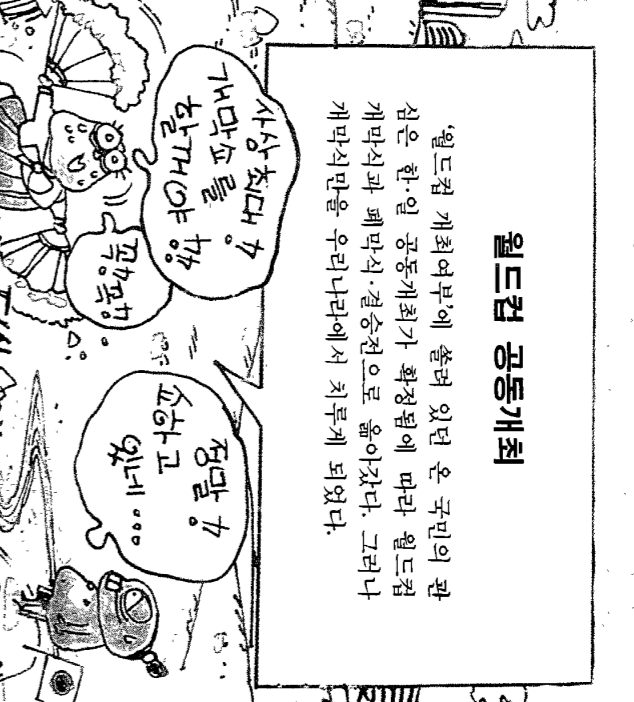
90주년 행사

올해로 개교 90주년을 맞아 열린음악회, 음악상 음악제, 세계문화축제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서울·경주 각각 개최된 '비전 동국 1백년' 후원의 밤을 통해 1백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동국이 하나되어 1백주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8·15대회

'제6차 범청원 통일대추전'과 '제7차 범민족대회'가 한성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세대에서 개최됐다. 경찰의 공안면담으로 구속자 1백62명, 불구속자 3천3백41명 등 사상최대규모의 구속자를 냈다.



월드컵 공동개최

월드컵 개최여부에 불려 있던 온 국민의 관심은 한·일 공동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월드컵 개막식과 폐막식·결승전을 뒀다. 그러나 개막식만을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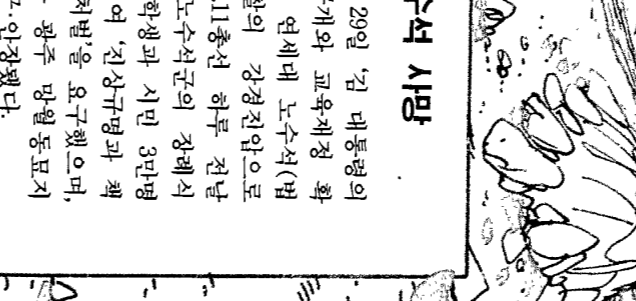
전·노 김형

12·12와 5·18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온 국민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던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교육개혁기 종합여

교육부의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평가'에서 본교가 종합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장부보조금 13억을 지원 받았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육개혁 특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참여속에 호응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수석 시명

지난 3월 29일 김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연세대 노수석(법 2)군이 경찰의 강제전압으로 사망했다. 411총선 하부 전담에는 학생과 시민 3만명 이 모여 '김장규명'과 '채임자 시신'을 요구했으며, 노수석은 광주 명월동묘지로 묻혀 안장됐다.



소나기 시면

본지 1210호(10월7일자) 소나기 중 일부내용이 문제가 돼 편집장과 편집기자가 1명이 구속입건된 바 있었다. 소나기면은 학내외에서 가장 원안이 되는 주제에 대해 대자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객치 있는 의견을 실는 낙서판이다.



간헐적 폭풍

강릉에서 발견된 잠수함과 간헐 26명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으며,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경색됐고 공안정국의 불씨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을 수습하는 도중 군과 민간에 피해자가 생겨 군의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지난달 29일 북측의 사과문 발표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구부 우승

이구부가 지난 4월 12일 전국대학이구 총재리그결승전에서 한양대를 꺾고 9년만에 우승자반을 되찾았다. 이로 인해 이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학생들의 이구부 경기에 많은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특별한 성과가 없이 한해가 마무리 되었다. 체육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